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

2

0

1

51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모두를 위한 교육 2000-2015: 성과와 과제



부
속
요

모두를 위한 교육 2000-2015: 성과와 과제

요약본

본 보고서는 국제 사회를 대표하여 유네스코가 발간하는 독자적인 출판물로, 보고서 작성팀과 많은 관계자, 단체, 기관과 각국 정부가 참여한 공동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그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요약본에 포함된 내용의 선택과 의견에 관한 책임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에게 있으며, 유네스코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거나 유네스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보고서의 관점과 견해에 관한 종합적 책임은 작성팀의 팀장에게 있습니다.

2015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

팀장: Aaron Benavot

Manos Antoninis, Ashley Baldwin, Madeleine Barry, Nicole Bella, Nihan Köseleci Blanchy, Emeline Brylinski, Erin Chemery, Marcos Delprato, Joanna Härmä, Cornelia Hauke, Glen Hertelendy, Catherine Jere, Andrew Johnston, Priyadarshani Joshi, Helen Longlands, Leila Loupis, Giorgia Magni, Alasdair McWilliam, Anissa Mehtar, Claudine Mukizwa, David Post, Judith Randrianatoavina, Kate Redman, Maria Rojnov, Martina Simeti, Emily Subden, Felix Zimmermann and Asma Zubairi.

이전 보고서에 참여했던 팀원들의 명단

유네스코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에 귀중한 공헌하였던 팀장들과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보고서들의 팀장이었던 Nicholas Burnett, Christopher Colclough, Pauline Rose and Kevin Watkins. 그리고 그들의 팀원들 Carlos Aggio, Kwame Akyeampong, Samer Al-Samarrai, Marc Philippe Boua Liebnitz, Mariela Buonomo, Lene Buchert, Fadila Caillaud, Stuart Cameron, Vittoria Cavicchioni, Mariana Cifuentes-Montoya, Alison Clayson, Hans Cosson-Eide, Roser Cusso, Valérie Djioze, Simon Ellis, Ana Font-Giner, Jude Fransman, Catherine Ginisty, Cynthia Guttman, Anna Haas, Elizabeth Heen, Julia Heiss, Keith Hinchliffe, Diederick de Jongh, Alison Kennedy, Léna Krichewsky, François Leclercq, Elise Legault, Agneta Lind, Anaïs Loizillon, Patrick Montjourides, Karen Moore, Albert Motivans, Hilaire Mputu, Michelle J. Neuman, Delphine Nsengimana, Banday Nzomini, Steve Packer, Ulrika Peppler Barry, Michelle Phillips, Liliane Phuong, Pascale Pinceau, Paula Razquin, Isabelle Reullon, Riho Sakurai, Marisol Sanjines, Yusuf Sayed, Sophie Schlondorff, Céline Steer, Ramya Subrahmanian, Ikuko Suzuki, Jan Van Ravens, Suhad Varin, Peter Wallet and Edna Yahil.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독립적인 연간 발행물로서 유네스코가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team
c/o 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Email: efareport@unesco.org, Tel.: +33 1 45 68 07 41
www.efareport.unesco.org
efareport.wordpress.com

Typeset by UNESCO
Graphic design by FHI 360
Layout by FHI 360

Cover photos from left to right:
Karel Prinsloo, Mey Meng, UNICEF/NYHQ2004-0991/
Pirozzi, Nguyen Thanh Tuan, UNICEF/NYHQ2005-1176/
LeMoyne, Magali Corouge, Benavot, Eva-Lotta Jansson,
BRAC/ShehzadNoorani, UNICEF/NYHQ2005-1194/
LeMoyne, Karel Prinsloo, Magali Corouge, Tutu Mani
Chakma, Benavot, Amima Sayeed

© UNESCO, 2015
All rights reserved
First edition
Published in 2014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Data available

한국어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펴낸이 | 민동석
기획 | 서현숙, 이지은
번역 | 이정훈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이메일 | education@unesco.or.kr
웹사이트 | www.unesco.or.kr

ISBN: 978-89-94307-65-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15/BK/1

EFA 세계 현황 보고서 목록

- 2013/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 2012. Youth and skills: Putting education to work
- 2011. The hidden crisi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 2010. Reaching the marginalized
- 2009. Overcoming inequality: Why governance matters
- 2008. Education for All by 2015: Will we make it?
- 2007. Strong foundation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 2006. Literacy for life
- 2005. Education for All: The quality imperative
- 2003/4. Gender and Education for All: The leap to equality
- 2002. Education for All: Is the world on track?

보고서 발행물에서 잘못된되거나 생략된 부분은 온라인 버전(www.efareport.org)에서 수정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모두를 위한 교육 2000-2015: 성과와 과제: 요약본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p. ; cm. --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 2015)

원표제: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원저자명: UNESCO
원서의 총서표제: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5
EFA는 "Education For All"의 약어임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ISBN 978-89-94307-65-7 93370 : 비매품

교육 지원[教育支援]
교육 평등[教育平等]
교육 협력[教育協力]

371-KDC6
379.129-DDC23 CIP2015030362

머리말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 모인 164개국은 다카르 행동계획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채택하여 공동의 신념을 이룩하고자 2015년까지 6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카르 행동계획의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고, 목표와의 격차를 점검하며, 2015년부터 뒤이어 시작될 세계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부, 시민단체 및 국제 사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2000년부터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 '모두를 위한 교육(EFA)'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2000년과 비교하여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수가 절반에 가깝게 감소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카르 세계교육포럼 이후 진척속도가 향상된 결과,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3,40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의 양성균등 부분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세계 국가 중 3분의 1은 여전히 성별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국내외 평가를 통해 학습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제공받기로 약속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진전에 대한 15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우리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전히 전 세계 5,800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약 1억 명의 아동이 초등교육을 마치지 않습니다.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취약한 극빈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곤층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확률은 최상위 계층 아동의 4배이며, 초등교육을 마치지 않을 확률은 5배입니다.

또한 여전히 분쟁은 교육의 큰 장벽으로,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진학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열악함으로 인해 수많은 아동이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상황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교육 부문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여러 정부가 교육 관련 지출을 늘렸지만 국가 예산 편성 시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는 국가는 드문 실정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자금 격차 극복에 요구되는 권장 할당 예산 20%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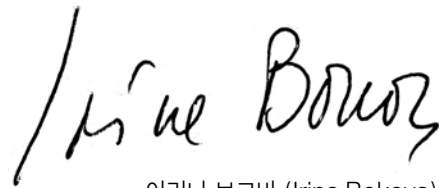
공여자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여, 최초로 원조 예산 규모에 기여한 이후 2010년 이래로 교육 원조는 줄곧 감소해 왔습니다. 또한 가장 원조가 필요한 국가를 우선시하여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와 같은 모든 경험을 토대로, 향후 세계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의 교육의 위치에 대한 분명한 권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교육 목표는 구체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을 지녀야 합니다. 교육 접근성이 가장 떨어져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 및 취약 계층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자금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더욱 강력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도 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 원조의 지속 및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의제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배포를 비롯한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각국을 지원하고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제공하여 정책 입안을 촉구하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교육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독립적 발언을 담아 각국 정부와 파트너에게 유용한 권고를 제공할 것입니다.

2000년 이래 우리는 많은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과 존엄성,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는 가장 강력하게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2000년부터의 경험이 시사하는 앞으로의 과제를 발판으로 삼아 목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리나 보코바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2015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 요약

2000년에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164개국 정부와 각 지역 기관, 국제 기관, 공여 단체, 비정부 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시민 사회 대표가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은 6대 목표와 2015년까지 각 목표와 관련하여 달성할 개별 목표,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실천을 요구하는 12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GMR: Global Monitoring Report)』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와 새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추진 상황을 거의 매년 모니터링했다. 특히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는 2000년부터 완료일까지의 다카르 행동계획 달성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의 공약 실행을 평가하며, 추진 속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post-2015 세계 교육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주요 교훈을 언급할 것이다.

2012년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1999년 대비
3분의 2
증가하였다.

EFA 추진 상황 점검

목표 1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확대 및 개선하여 제공한다.

- 유아 사망률이 50%가량 감소했음에도 2013년에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5세 이하 아동은 630만 명에 달한다.
- 유아 영양 개선 부문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 아동 4명 중 1명은 필수 영양소의 만성 부족으로 연령에 비해 키가 작다.
- 2012년에 세계 유치원 등록 아동의 수는 1억 8,400만 명으로, 1999년에 비해 약 3분의 2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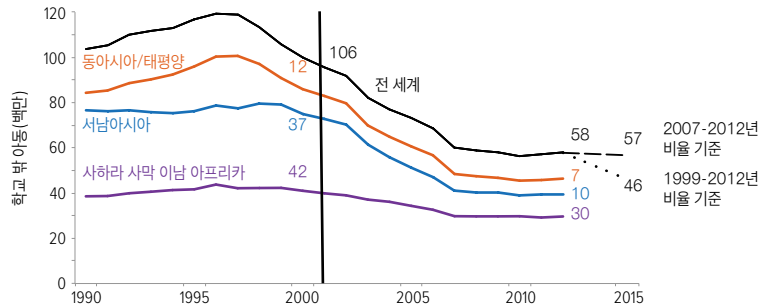
목표 2 - 초등교육의 보편화

2015년까지 특히 여아와 열악한 환경의 아동, 소수 민족 아동을 염두에 둔 모든 아동이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받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 1999년 초등학교 순 등록률은 84%였던 반면, 2015년에는 약 9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순 등록률은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17개국에서는 1999년에 비해 2012년 등록률이 적어도 20% 상승하였다. 이들 중 11개국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 등록률이 분명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학교 밖 아동의 숫자는 약 5,800만 명으로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표 1: 2015년에도 여전히 수천만의 비진학 아동 존재

전 세계 및 지역별 비진학 취학 연령 아동 규모, 1990-2012 및 2015(예상)



출처: 유네스코 통계국(UIS) 데이터베이스; Bruneorth (2015).

2015년까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아동 6명 중
1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접근성이 높아졌음에도 중도 포기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인 32개국에서는 적어도 20%의 취학 아동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마감 기한까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아동 6명 중 1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약 1억 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목표 3 - 청소년 및 성인기술

적절한 학습 및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 및 성인층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게 한다.

- 진학률과 유지율 향상 덕분에 중학교 교육의 등록률이 1999년 71%에서 2012년 85%로 증가했다. 중학교 교육 참여율은 1999년 이래 빠르게 증가해 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중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에서는 중학교 교육 총 등록률이 적어도 25% 포인트 상승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데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극빈층에 속하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 69%만이 중학교로 진학하는 반면, 부유층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94%에 달하고 있다.
- 자료를 살펴보면 중, 저소득 국가 94개국의 대부분은 1999년 이래 무상 중학교 교육을 법제화하였다. 이중 66개국이 제도적인 보장을 갖추었으며, 28개국의 경우 기타 법적 조치를 제정하였다. 2015년 현재, 유상 중학교 교육이 시행되는 국가는 보스와나, 기니,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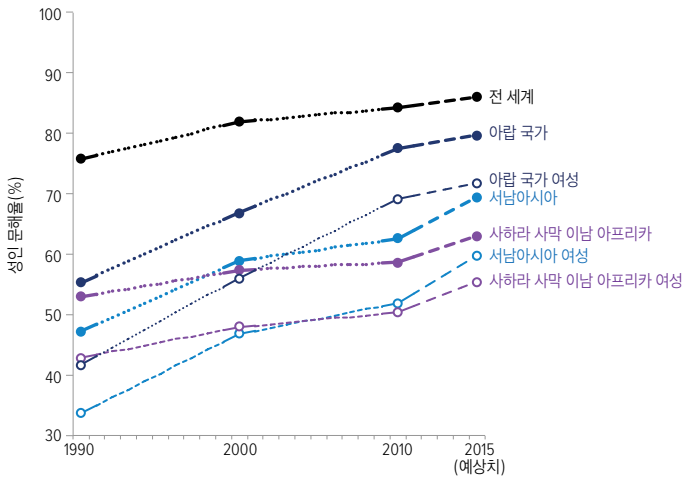
목표 4 - 성인 문해

2015년까지 현재의 성인 비문해율을 50% 이상 개선하고, 특히 여성의 비문해율 개선이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성인에게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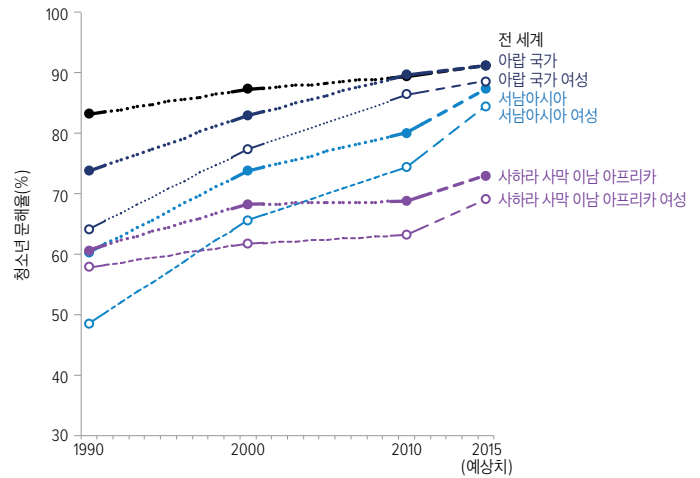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7억 8,100만 명의 성인 비문해자가 존재한다. 비문해율은 2000년 18%에서 2015년 약 14%로 약간 감소하여, 다카르 행동계획의 목표인 비문해율 50%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표 2: 세계적으로 문해율 목표 달성이 여전히 요원

a. 전 세계 및 지역별 성인 문해율, 1990, 2000, 2010 및 2015(예상)



b. 전 세계 및 지역별 청년 문해율, 1990, 2000, 2010 및 2015(예상)



비고: 문해율 데이터는 매년 수집되지 않았으므로 지역 및 글로벌 데이터란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 조사를 의미한다. 표에서 1990년은 1985-1994년의 10년에 대한 인구 조사를, 2000년은 1995-2004년에 대한 인구 조사를 각각 의미한다. 2010년은 최신 자료로 2005-2012년의 조사 결과를 의미한다.

출처: 유네스코 통계국(UIS) 데이터베이스.

- 2000년에 문해율이 95% 이하였던 73개국 중 2015년에 비문해율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17개국뿐이었다.
- 문해 능력에 대한 남녀 격차를 줄이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2000년에 문해자 남성 100명 대비 여성이 90명 미만이던 43개국 모두 성별 간 격차는 줄어들었으나, 2015년까지 성별 간 격차를 해소한 국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5 - 양성평등

2005년까지 초, 중등학교 교육에서 성별 간 격차를 일소하며, 2015년까지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여아의 완전하고 동등한 양질의 기초 교육 기회 및 교육 이수를 보장한다.

- 조사된 국가 중 69%는 2015년까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양성균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교육은 이보다 진전 속도가 느려, 48%의 국가에서 양성균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극심한 성별 간 격차 해소에 진전이 있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남아 100명의 초등학교 등록 대비 여아 등록이 90명 미만이던 국가 수가 33개국에서 16개국으로 감소하였다.
- 학교 밖 아동들 중에서 여아의 경우 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48%로 남아의 37%에 비해 큰 반면, 중도 포기할 가능성은 남아가 26%로 여아 20%보다 컸다. 즉, 학교에 등록한 후에는 여아가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극빈층 여아였다. 2010년, 기니와 니제르에서 초등학교에 가지 못한 극빈층 여아의 비율은 70%를 웃도는 반면, 부유층 남아의 경우 20% 미만에 불과했다.

2015년까지
3분의 2의 국가에서
초등학교의 성별
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6 - 교육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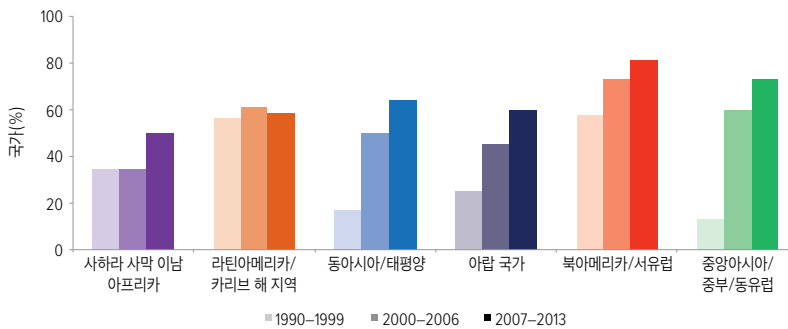
모든 교육 분야의 질적 수준을 혁신하고, 특히 문자 문해, 수문해, 그리고 필수적 생활 기술의 교육에 있어 인식, 측정 가능한 학습 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한다.

- 초등교육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146개국 중 83%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가 표준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 초등 교사는 75% 미만에 불과하다.
- 중학교 교육 수준 데이터를 살펴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30:1 미만인 국가는 105개국 중 87개국이었다.
- 1990년 12가지였던 국가 표준에 따라 시행된 학습 평가가 2013년에는 101가지로 증가하였다.

EFA 목표를 통해 학교에 등록한 아동이 3400만 명 증가하였다.

표 3: 2000년 이후 각국에서 더욱 강조되는 학습 평가의 중요성

하나 이상의 전국 학습 평가를 시행 중인 국가 비율, 1990-1999, 2000-2006 및 2007-2013



출처: 국가적 학습 평가 부록 데이터에 근거한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2014) 분석

상자 1: 다카르 행동계획 이후로 추진 속도가 향상되었는가?

유치원 교육의 총 등록률 추진의 가속화가 이루어졌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90개국에서 1990년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했을 경우 2015년 40%를 기록했을 평균 유치원 등록률이 실제로는 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교육의 보편화 추진 속도는 이보다 저조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52개국에서 1990년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했을 경우 2015년 82%를 기록했어야 할 초등학교 총 등록률은 9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70개국의 **초등학교 최종 학년 잔류 비율**은 초등학교 등록률 개선이 초등교육 보편화 추진속도 둔화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23개국 잔류 비율 증가가 가속화되었으나 37개국에서는 증가가 둔화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의 비율로 증가했을 경우 2015년 80%에 도달했어야 할 전 세계 잔류 비율은 76%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추세가 지속되었을 경우의 예상 수치와 비교하여, 현재 2010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 중 2015년에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수가 3,400만 명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카르 행동계획 이전과 비교하여 2005년 이전 출생한 아동 중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수가 2,000만 명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교육 부문에서 **성별 간 격차 해소**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다카르 행동계획 이전의 추세로도 충분히 세계적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초등교육 보편화와 같은 개별 목표로 들어가 살펴보더라도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EFA)' 달성을 '현실적이고 도달 가능한 목표'로 천명한 것은 과장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음지라도 지금까지의 기록과 비교할 때 약소하나마 진전이 이루어졌다.

EFA 추진 상황 설명: 국제적 수준에서 EFA 운동의 역할 평가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결의한 국제적 공약은 일부 실시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구상한 메커니즘 일부는 2000년부터 교육 부문의 진전을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는 post-2015 세계 교육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거가 된다.

다카르 행동계획은 세 가지 방법의 국제적 개입을 통한 국가별 지원을 제안하였다.

- 기존에 존재한 일부 메커니즘과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최초로 구상되어 이후 수정을 거친 메커니즘의 공조
- 성인 문해, 또는 분쟁 등의 특정 과제를 전담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캠페인
-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명시된 구상 및 추후 다카르 행동계획의 권한으로 설계된 각종 사업 구상

이러한 개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5대 중간 성과를 달성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모두를 위한 교육(EFA)’에 대한 정치적 공약의 재확인과 지속
- 다양한 유형의 지식, 근거, 전문성의 소통과 활용
- 국내 ‘모두를 위한 교육(EFA)’ 정책 및 실천의 설득 및 강화
- ‘모두를 위한 교육(EFA)’ 재정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
- 독립적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추진 모니터링 및 보고 기구 설립

이러한 결과 달성을 위한 12개 전략이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제안되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EFA)’ 파트너가 이러한 전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알아본다.

전략 1: 기초 교육에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

1999년 이래 저소득, 중하위 소득 국가는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의 상당 비율을 교육에 할애하였으며, 교육 원조는 실질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우선추진구상(Fast Track Initiative)의 후신인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개입이 공공 교육이나 교육 원조에 대한 정부 지출 수준을 높였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EFA
목표 달성을 위한
12개 전략 제안이
발의되었다.

전략 2: 빈곤 퇴치와 연계된 통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EFA 정책을 마련한다.

다카르 행동계획은 국가적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계획이 공약의 실천을 위한 주요 도구임을 명시하였다. 중, 저소득 국가 30개국의 국가적 계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흐름을 비교했을 때 해당 국가들의 질적 개선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서상에서 양호하게 보이는 계획이라도 각국의 정치적 절차 및 교육 체계 현실과 관련하여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략 3: 시민 사회가 적극적인 교육 개발 전략에 동참하도록 한다.

2000년 이래 교육 부문의 주된 특징으로 시민 사회의 참여 증대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은 유의미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적 교육 연대 구축이라는 제한적인 성공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전략 4: 책임 있는 거버넌스 및 관리를 마련한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 분권은 교육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다. 전반적인 지역 참여 독려와 학생의 요구에 대한 학교의 대응 개선면에서는 빈곤층 가계의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점 등 학부모와 공동체가 과제를 안고 있다. 역량이 부족한 빈곤 국가의 경우, 지방 분권과 학교의 자율성은 학업 성과와 교육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전략 5: 분쟁 및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영향 받고 있는 곳의 교육 체계 필요를 충족시킨다.

2000년 이래 극한 상황에서의 교육 제공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졌으며, 분쟁 상황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카르에서 결정된 관련 공약을 수행하는 파트너들의 노력으로 분쟁 및 극한 상황에서의 교육 문제가 꾸준히 의제화되었다.

전략 6: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 전략을 구사한다.

가장 가시화된 양성평등(gender equality)에 관한 국제 메커니즘으로 유엔 여자 어린이 교육 지원(UNGEI: United Nations Girls' Education Initiative)이 있다. 지역 수준에서는 기여도가 크지 않으나, 국제적 정책 협의와 지지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는 단체로, 국가 수준에서는 굳건한 국제 협력을 통하여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자리잡았다. 전반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EFA)' 파트너는 양성평등 목표 구현을 위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

전략 7: HIV 및 AIDS 퇴치 행동을 전개한다.

2000년,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의 확산은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 교육 체계의 근간을 위협했다. 2015년 현재 여전히 AIDS 퇴치가 진행 중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 교육 구상에서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를 느껴 포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카르 회의 이후 전 세계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개괄적인 접근을 채택하였다.

전략 8: 교육 환경의 안전성, 보건성, 포괄성 및 자원 형평성을 보장한다.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양성평등 및 양질의 교육 관련 목표 달성에 학습 환경의 질이 미치는 영향이 강조

강력한 지지
노력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되었다. 그러나 교육학부터 사회적 보호와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인 문제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포섭하고자 했기 때문에 집중력 분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국제적 차원에서 각국의 건강한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다.

전략 9: 교사의 지위, 사기,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2008년, 교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EFA)’ 교사들에 대한 국제 특별대책팀(The International Task Force on Teachers for EFA)이 설립되었다. 해당 대책팀의 설립은 적절했으나 국가별 요구와 더욱 밀접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직원 권고 적용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유네스코의 전문가 위원회 공동 권고(Joint ILO and UNESCO Recommendation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Recommendations Concerning Teaching Personnel)는 강력한 변화 기제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래 교사의 지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전이 없었다.

2000년 이래
EFA 목표 모니터링
방식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전략 1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EFA)’를 구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빈곤국의 기반시설 개발 및 기술 보급의 부진, 교육과 관련한 국제 ICT 공조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전략 11: 추진 상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다카르 행동계획은 견고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 통계가 필요함을 천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유네스코 통계국(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을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2000년 이래 가계 동향 조사 데이터를 대폭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공교육 지출 데이터는 여전히 미비하나, 공여자의 지출 보고 방식에서는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최근 세계 현황 보고서(GMR)는 ‘탄탄한 조사와 분석을 기초로 한 양질의 보고서’로 평가받았다. 2000년 이래 전반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의 모니터링 및 추진 상황의 보고 방식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전략 12: 기존 메커니즘을 기초로 하여 강화한다.

마지막 전략에서는 ‘기존 조직, 네트워크 및 구상을 기초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존 메커니즘이 국제 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 세계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공조 메커니즘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했으나, 2006년에 설립된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EFA)’ 추진 상황을 검토할 수 있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주기에서 책임성 문제는 2015년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 EFA 공조

‘모두를 위한 교육(EFA)’ 파트너의 국제적 차원의 다카르 전략 수행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려면 조정 기관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 성과는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주도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공조 메커니즘은 정치적 공약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서도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두었다. 향후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공조 메커니즘에 대한 유네스코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거 수집

다카르 행동계획의 12개 전략은 효과적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 구상에서 기대한 5대 주요 중간 성과에 충분히 기여했는가? 사업 기간 내 ‘모두를 위한 교육(EFA)’에 대한 정치적 공약의 재확인과 지속을 평가했을 때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주요 개발 의제 위치를 점하면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 결과 초등교육 보편화에 집중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유네스코는 고위급 정치적 관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달성에 대한 고위급회의(High-Level Group: EFA 목표 달성 추진에 대한 각 국가 정부대표 및 국제 기구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진 그룹, 역자주) 구성원들의 관심은 멀어졌다. 아직까지 국제적, 지역적 협의는 국가와 국제 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2000년 이래 다양한 유형의 지식, 근거, 전문성의 수집, 소통 및 활용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근거, 정책, 연구 사업의 상당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활동과 큰 연관성을 갖지 못하였으며, 교육 부문 이외에서 수집된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근거 일부의 경우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공조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책 입안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MDG가 주요 개발
의제로 선정되면서
EFA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Credit: Eva-Lotta Jansson

2000년 이래 국가별 교육 계획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지식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근거에 기반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내 ‘모두를 위한 교육(EFA)’ 정책 및 실천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카르 행동계획을 통해 기대한 주요 성과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재정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에 일조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었다. 저소득 국가에서 국내 교육 지출을 증대할 가망이 있었으나, 지출 증대의 주 요인은 교육 우선순위가 아닌 동원된 국내 자원 규모의 증가였다. 절대치로 보았을 때 국제 원조는 상당히 증가했으나 요구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독립적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추진 모니터링 및 보고 기구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이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모멘텀 및 공약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교육(EFA)’ 파트너의 빈번한 지원을 통한 데이터의 품질 및 분석에서의 현저한 개선이 있었기에, 보고 방식이 개선될 수 있었다.

Post-2015 의제는 국가 수준의 개혁 및 행동 규모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

2000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교육 증진을 향한 노력은 모든 아동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과 새천년개발목표(MDG)에서 주창한 초등교육 보편화는 주로 최빈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다른 국가와의 연관성은 적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보편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교육의 질,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성인 문해와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을 간과하였다.

전반적으로 더 큰 포부를 지닌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는 커녕, 초등교육 보편화조차 아직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업적을 쌓기도 했다. 세계는 1990년대의 추세가 지속되었을 경우의 결과보다 2015년에 현저한 진전을 달성할 것이다. 또한 다카르 회의 이후 교육 추진 모니터링의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를 위한 교육(EFA)’ 파트너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영향력과 견인이 더욱 중요하며, 이들이 국가적 차원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 행동의 규모를 가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지난 15년 간의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이에 따라 post-2015 의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다.

2000-2015 성적표

목표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확대 및 개선하여 제공한다.

글로벌 성적* <small>*148개국 데이터에 기반</small>	<div> <div>목표에 현저히 미달 20%</div> <div>목표 미달 25%</div> <div>목표 근접 8%</div> <div>목표 도달 47%</div> </div>
성과 	<div> <div> 아동 사망률 ↓39% 2000 2015 </div> <div> 유치원 등록 인원 1억 8,400만 명 (2012년) </div> <div> 의무 유치원 교육 2014년까지 40개국 시행 </div> <div> 유치원 통학 비율(%) <small>*2012년 데이터</small> </div> </div>
구체적인 노력 	<div> <div> 영유아 필요에 대한 이해 증진 도서 인지 자극 놀이 학부모의 참석 문화 인지적 교육 모델 안전한 공간 학습용 장난감 </div> <div> 다양한 교육 참여 장려 방안 교육비 감면(가나) 현금 지원(중국) 이동식 유치원(몽골) 학교 교육 의무화(멕시코, 미얀마) </div> <div> 수요 증가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가나, 태국) </div> </div>
지속적인 당면 과제 	<div> <div> 아동 사망률 630만 명 2013년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 </div> <div> 유치원 등록 2015년까지 전 세계 약 1/5의 국가에서 아동의 학교 등록률 30% 미만 </div> <div> 낮은 품질 더 많은 훈련된 교사와 돌보미가 필요 </div> </div>
불균등한 발전	<div> <div> 아동 사망률 격차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선진국 아동의 15배 </div> <div> 지역 격차 2000년 보다 지방 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을 확률은 도시 아동의 2배 (토고, 차드, 라오스) </div> <div> 빈부 격차 부유층 아동과 빈곤층 아동의 학교를 가는 인원의 격차가 2000년에 비해 2배나 커졌다. (니제르, 토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몽골) </div> <div> 사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등록 아동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1999년 이후 </div> </div>
Post-2015를 위한 권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아동, 특히 가장 소외된 계층의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 1년의 의무 유치원 교육이 필요하다. <p><i>집중력 증대가 요구됨</i></p>

목표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확대 및 개선하여 제공한다.

유아기의 아동 발달 지원은 더 나은 교육 성과 및 광범위한 사회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유아기는 교육 투자 대비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다. 특히 빈곤 국가의 취약 공동체 투자가 큰 경제적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유아 시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200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수는 증가하였으나, 소외 계층의 아동은 여전히 재정 부족과 구조적 불평등, 질적 사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태다.

생존률과 영양 섭취는 개선되었으나 보육은 여전히 열악

영양 부족은 아동의 대, 소근육 운동 발달의 지체를 야기하며 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영양 섭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빈곤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 요소의 상호 강화를 막기 위한 보건, 교육, 사회 보호 사업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

유아 사망 감소

1990년 1,000명당 90명이던 유아 사망자 수는 2013년 46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이는 2000년에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목표인 1990년 유아 사망자 수의 3분의 2 감소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에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사망하는 5세 미만 아동의 수는 630만 명에 달하였다. 사망 위험은 빈곤한 가정, 시골 지역 또는 산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더 높아진다. 따라서 유아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전히 불충분한 아동 영양 상태 개선

199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발육 부전 아동의 비율이 줄어 들었다. 2000년 이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영양실조인 아동의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이며 2020년까지 전 세계의 영양실조 아동 인구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육아 휴가와 우수한 육아 관행이 아동의 발달 지원에 기여

아동은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중, 고소득 국가에서 생후 첫 1개월의 산후유급휴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후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여성 취업자에게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전 세계의 28%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 역시 아동 발달에 중요하다. 2013년까지 남성의 육아 휴가를 시행하는 국가는 167개국 중 78개국이며 이중 70개국은 유급 휴가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육아 휴가의 지급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남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집 안팎에서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인지 및 사회 정서적 발달을 함양할 수 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1:1 지원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유아 사업에 다부문적인 접근법을 도입하는 추세

다카르 행동계획에서는 각국에 빈곤 및 소외 계층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의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면서,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된 국가적, 다부문적 정책을 시

기초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현저한
이익으로
돌아온다.

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4년 기준, 78개국이 다부문정책을 채택하였고, 23개국은 이를 마련 중이었다. 이러한 다부문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계성, 교육 부처 간의 합의된 진척도 측정 기준, 실무자 연속성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유치원 교육 체계 및 등록 수준의 급상승

아동의 생활 기회를 개선하고, 교육 체계 및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무형식 프로그램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접근성 확대가 필수적이다.

10년간 유치원 등록률이 3분의 2 증가했으나 현저한 불평등 존재

1999-2012년 사이 유치원 등록 인원은 총 1억 8,400만 명으로 64% 증가했으며 성별 간 격차도 거의 없다.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경우 공립 유치원 체계를 대규모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진전 양상은 불균등하여, 국가 내에서도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를 비롯하여, 공동체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다.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참여의 격차는 라오스, 튀니지, 몽골과 같은 국가에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법안** 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2014년까지 40개국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법안을 도입하였다.
- **정책** 기본 교육 과정에 유치원 교육을 포함하는 정책을 추

진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시행 중에 있으나 실제로 적용할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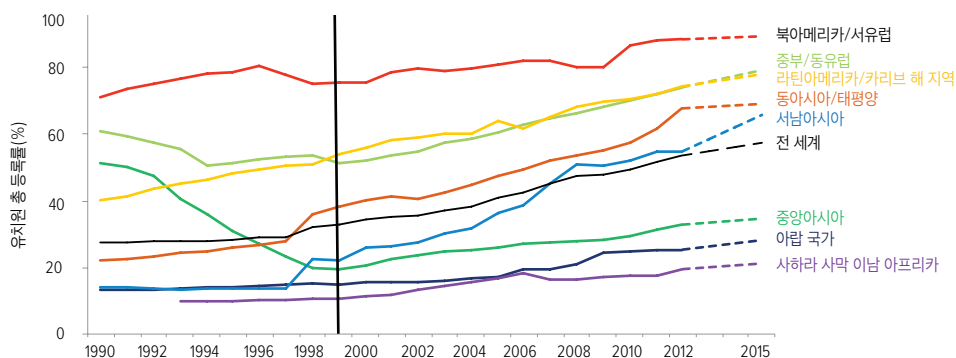
- **등록비 감면** 유치원 교육 등록비를 감면한다. 이미 시행한 국가들에서 현저한 참여 증대가 나타났다. 단, 일부 국가의 경우 필요한 자원 모색에 난항을 겪었다.
- **장려금** 유치원 교육 등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국의 시골 지역에서 교육 참여를 조건으로 학비 면제와 현금 지원을 받은 가정의 아동은 유치원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20% 더 높았다.
-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관심을 증진시킨다. 태국의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교육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4-5세 아동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 참여율이 약 93%나 증가하였다.

여전히 높은 사립 교육 참여율

1999-2012년 사이에 100개국에서 사립 유치원에 등록한 비율은 28%에서 3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민간 부문 등록률의 증가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수업료를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은 많은 극빈층 아동을 소외시킨다. 그리고 사립 교육 제공자는 인구 밀도가 낮거나 외곽 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게다가 저소득 및 중, 저소득 국가에서 수업료가 낮은 사립학교 다수가 정부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도 많은 빈곤층 아동은 빈곤 지역에 몰려 있는 저렴한 고 열악한 사립 유치원에 다님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표 4: 다카르 기간 동안 유치원 등록률 4분의 3 이상 증가 전망

1990-2012 및 2015(예상) 전 세계 및 지역별 총 유치원 등록률



출처: 유네스코 통계국(UIS) 데이터베이스; Bruneorth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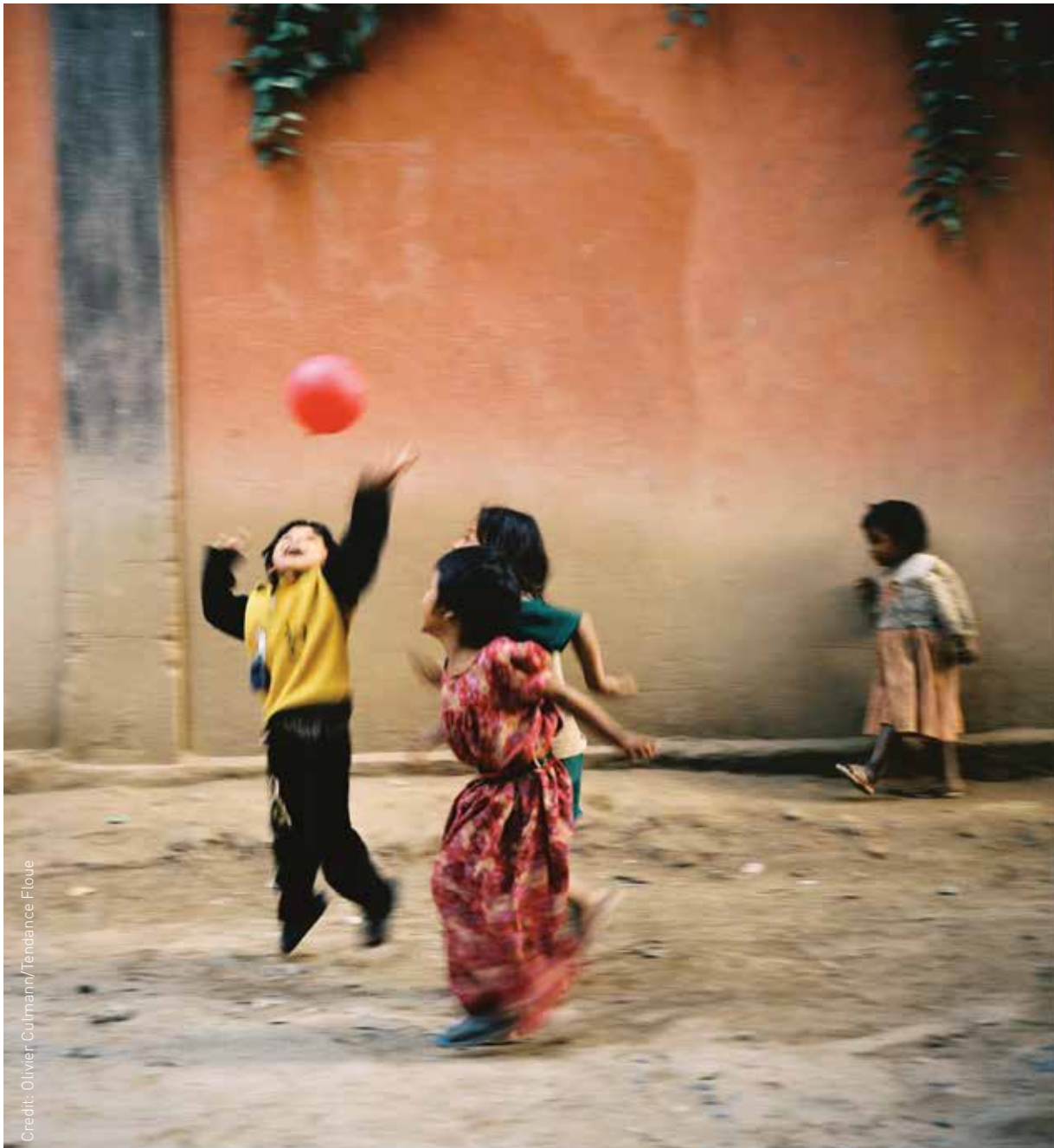
2014년까지
40개국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법안을
도입하였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아직 현재진행형

양질의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초등학교 및 그 이상의 과정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제공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유치원 교사 훈련이 핵심이지만, 훈련

받지 못한 교사가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낮은 지위와 급여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습 결과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사립 교육 부문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교사 급여를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케냐, 싱가포르,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 유치원 교사 대상 훈련 요건을 명확히 수립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최소한의 표준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Credit: Olivier Culmann/Tendance Floue

2000-2015 성적표

목표 2 초등교육 보편화

2015년까지 특히 여아와 열악한 환경의 아동, 소수 민족 아동을 염두에 둔 모든 아동이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받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p>글로벌 성적*</p> <p><small>*140개국 데이터에 기반</small></p>	<p>목표에 현저히 미달 목표 미달 목표 근접 목표 도달</p> <p>9% 29% 10% 52%</p>
<p>성과</p> <p>✓✓</p>	<p>초등학교 등록 인원</p> <p>1999년 84% 현재 91% = 4,800만 명 증가</p> <p>초등학교 이수</p> <p>말리, 기니,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베냉, 모잠비크</p> <p>초등학교 이수 인원 약 20% 포인트 이상 증가</p>
<p>구체적인 노력</p> <p>✓</p>	<p>교육비 감면 사회적 보호 학교, 식수, 전력 및 보건 기반 시설 확충</p> <p>예) 빈곤 아동 대상 현금 지원 등</p>
<p>지속적인 당면 과제</p> <p>✗</p>	<p>학교 밖 아동 중퇴 아동 장애 요소</p> <p>5,800만 명의 학교 밖 아동 존재 이 중 2,500만 명은 학교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음</p> <p>3,400만 명이 매해 학교를 중퇴 최종 학년까지 도달하는 학생 비율 개선 없음</p> <p>서남아시아 64%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58%</p> <p>36%의 학교 밖 아동이 분쟁 지역권에서 발생</p> <p>낮은 교육의 질 학교 교육은 여전히 무상으로 보편 제공되지 않음</p>
<p>불균등한 발전</p>	<p>지역별 학교 밖의 아동 중하위소득국가에서의 지방/도시 격차 간과되는 소외 계층 극빈층이 가장 열악</p> <p>이외의 국가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p> <p>2000년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 3배 2008년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 4배</p> <p>분쟁, 노동, 장애, 민족/언어 소수 집단, HIV, 촌락 여아</p> <p>2010년 부유층 대비 초등학교 이수를 못할 확률 5배</p>
<p>Post-2015를 위한 권고</p>	<p>1.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을 위해서는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2.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진전을 추적하려면 데이터 개선이 필요하다.</p> <p><i>개선의 여지가 있음</i></p>

목표 2 초등교육 보편화

2015년까지 특히 여아와 열악한 환경의 아동, 소수 민족 아동을 염두에 둔 모든 아동이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받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교육 보편화는 새천년개발목표(MDG)에도 포함된 의제로 가장 중요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목표였다. 지금까지 충분한 재정, 정치적 지원과 함께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나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외 계층을 외면하는 국가에서는 초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할 수 없다. 민족적, 언어적 소수 집단, 촌락 여아, 노동 아동, 유목 공동체, HIV와 AIDS의 영향을 받은 아동, 빈민가 거주 아동, 장애 아동 및 복합적 긴급 상황에 놓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빈곤 집단까지 초등교육 보편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추진 상황 모니터링

2012년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중 약 5,800만 명은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 높은 인구밀도, 분쟁 상황, 다양한 사회 경제

적 소외 및 일부 학교 밖 인구 규모가 큰 국가의 적절한 노력 부족 등이 주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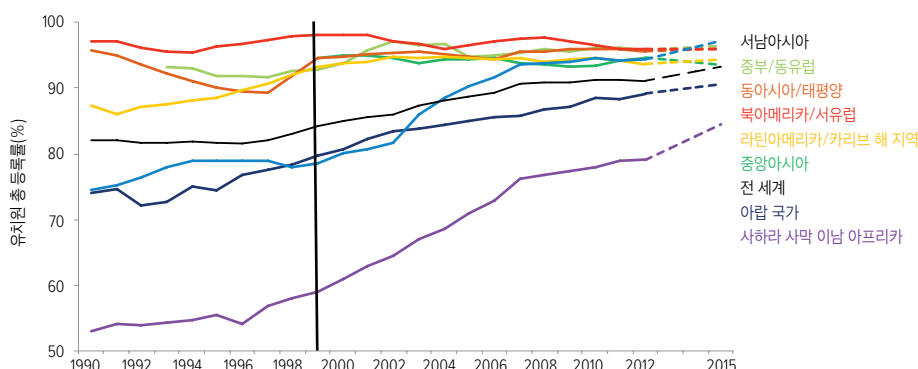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브룬디, 에티오피아,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탄자니아와 같은 국가는 초등교육 참여에 있어 성별 및 소득 간 격차를 감소시키고 초등학교 순 등록률 및 이수율을 증가시키는 등 균등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발전을 달성하였다.

초등교육 순 등록률 상당 부분 개선

116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중 17개국에서 199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초등교육 순 등록률이 2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부탄과 라오스, 네팔에서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니카라과에서 약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브룬디에서는 2000년 41% 이하였던 순 등록률이 2010년에 94%까지 증가하였다.

목표 2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었음에도 2015년까지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표 5: 2000년대 초반의 급상승과 2007년 이후 둔화를 나타내는 초등학교 순 등록률 성장 속도
수정된 전 세계 및 지역별 초등학교 순 등록률, 1990-2012 및 2015(예상)



출처: 유네스코 통계국(UIS) 데이터베이스; Bruneorth (2015).

다수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이수 인원이
증가하였다.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의 수 감소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교육받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2000년에 20%에 달했던 국가들 중 10개국에서 2010년에는 그 비율이 반 이상 줄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2000년 67%에서 2011년 28%로 줄었고, 탄자니아는 1999년 47%에서 2010년 12%으로 줄었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많은 인구가 교육에서 소외

인구 수가 많은 국가에서는 2012년에도 학교 밖 인구가 여전히 많았다. 인도에서는 86%이던 초등학교 순 등록률을 99%까지 끌어올렸으나,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에서는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민족 및 종교 분쟁, 열악한 민주주의와 부패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분적인 방해 요소로 작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극빈층의 초등교육 이수 달성이 요원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베냉,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기니, 말리, 모잠비크, 네팔, 시에라리온 8개국의 초등학교 이수율은 20%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며, 교육에서의 재정적, 질적 및 타당성 등의 지속적인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로 편차가 큰 추진 상황

저소득 국가에서 학교 중퇴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학교 교육에 뒤늦게 편입하거나 가난한 아동에게서 두드러진다. 139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와 중부 및 동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인 54개국의 초등학교 등록 아동은 2015년까지 대부분 최종 학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가 대부분인 32개국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최소 20%가 조기 중도 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무상 교육 부문

학교 교육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된다. 2000년 이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15개국에서 무상 교육 법안이 채택되었다. 무상 교육 시행 이후 몇 년간 초등교육 등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초등교육 참여에 존재하는 경제적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예산의 증가에 일부 힘입은 바가 있다. 또한, 국내 정치가 무상 교육의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에서 효과적인 선거 의제로 사용되고 있다.

무상 교육에 따른 초등교육 등록의 급속한 확대는 1990년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초등교육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순차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교육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 무상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대부분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전달 과정도 허술했고, 수령인이 부적절하게 선별되었다.

수요 증가로 인해 성공한 일부 접근법

무상 교육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참여에는 당사자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 비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무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초등교육에 대한 가족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계획으로 통학이나 급식, 교복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현금 및 급식 지원, 장학금, 학비 보조금 등 수요자의 환경을 고려한 교육 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학교 급식 지원 프로그램

169개국의 3억 6,800만 명의 아동에게 교육을 위한 급식 사업이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을 받는 아동의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 등록과 출석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

취약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했으며 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중, 저소득 국가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다. 대부분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등록 및 출석 증가와 중퇴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취약 계층의 교육 성과에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현금 지원이 조건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 출석하는 아동에 한해 좀 더 수월하게 정책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보다 출석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더 나은 교육적 효과를 보였다.

공급 측면의 개입을 통한 초등교육 참여 증진

학교 및 도로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건축 사업이 교육 참여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 성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 부문의 개입도 증가하였다. 사립, 지역 사회, 비형식 학교와 같은 비정부 기관이 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학교 및 교실 건설

학교 건물의 유무는 아동의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간주된다. 모잠비크의 사례를 예로 들면, 1992년에서 2010년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및 중등학교의 수를 3배 증가시켰으로써,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아동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기반시설 및 보건 부문 개선

많은 국가에서 도로, 전력, 수도 기반시설이 상당히 개선됨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증가했다. 특히 여아의 교육 등록은 학교까지의 거리와 기반시설 수준에 민감한데, 이는 인도의 주요사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교육 제공자로 성장한 사립학교 및 비정부 기관

교육 부문에서 사립학교의 역할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남아시아에서는 전체 6-18세 아동 중 3분의 1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등록에 있어 중동 및 중부, 동유럽,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지역의 국가에서 사립학교의 점유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지역 사회 학교는 적응이 쉽고, 비용 효율이 높고, 학생 중심적이며, 공립학교보다 지역 요구에 적합한 학교이다. 가나, 탄자니아, 잠비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학교의 형태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취약 지역에 주로 건립된다.

비형식교육 센터는 유연하고 가속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형식교육 체계로의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BRAC(Bangladesh Rehabilitation Assistance Committee)에서는 수천 개의 비형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종교 학교는 많은 부모들의 필요를 충족한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는 마드라사(madrasas)라고 불리는 이슬람 학교들이 오랫동안 소외 계층 교육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예수회 계열의 민간 비영리기관인 'Fe y Alegría'는 17개국에서 학교 등록 아동을 약 100만 명 증가시켰다.

여러 국가에서
사립 초등학교가
최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동급생에 비해
뒤쳐진다.

초등교육 보편화의 필수 요소인 소외 계층 참여

입법 및 정책 부문의 진전으로 다양한 취약 집단 아동의 초등 교육 참여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취약 계층은 여전히 빈곤, 성별, 신분, 민족 및 언어 배경, 인종, 장애, 지역적 및 생계적인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 아동에게는 문제점 간 상호 악화에 따른 복합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민족 및 언어 소수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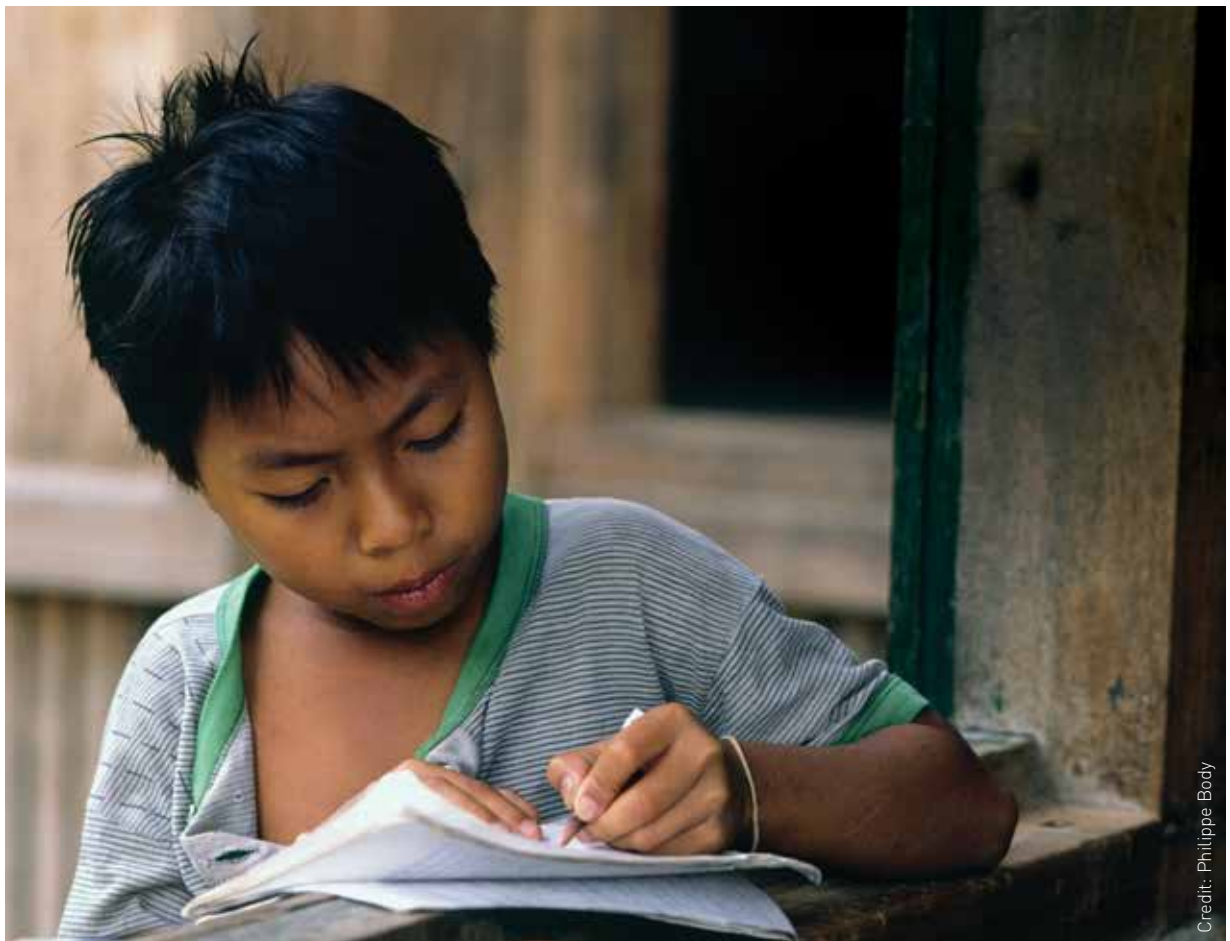
교육 참여 및 이수에 있어서 주류 언어 구사자와 기타 언어를 구사하는 소수 집단 간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가 많다. 모국어와 이중언어 교육이 민족언어적 소수자의 교육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맥락도 존재하나,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이러한 교육의 질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 노동

아동 노동은 교육 성과 및 이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 기회와 강제적 교육 법안은 아동 노동을 감소시켜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고 빈곤을 줄인다. 5-11세의 아동 노동 인구는 2000년 1억 3,900만 명에서 2012년에 7,300만 명까지 줄었다. 많은 국가에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13세에 학년 진급에 있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목 공동체

유목 인구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유목민 특화 교육계획들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에서 시행되었으나 학교 등록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목 공동체들에게 잠재적으로 유용한 모델인 개방 및 원격교육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Credit: Philippe Body

HIV와 AIDS의 영향을 받은 아동

다카르 회의 이후로 HIV와 AIDS의 영향을 받은 아동에 관련된 재정적, 정책적 지원 사업이 증가하였지만 아동의 치료와 복지에 집중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은 우선시되지 않았다. 고아와 취약 아동의 교육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2000년대 중반 즈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취약 계층의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빈민가 아동

2000년에는 대부분의 정부가 빈민가에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 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에 시골 이주민들로 인해 빈민가 거주민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나 계획의 부재 속에서 비영리조직과 민간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인도,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빈민가 내에 저렴한 사립학교들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 아동

9,300만 명에서 약 1억 5,000만 명의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는 교육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장애는 주로 빈곤과 연관되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적, 성별 요소들보다 교육 참여에 더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장애가 있는 여아는 특히 소외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장애 아동의 학교 교육 참여가 빈번히 제한되는 원인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애와 이들의 필

요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 훈련과 물리적 설비 부족, 그리고 장애와 차이에 대한 차별적 태도들이 꼽힌다.

아직도 분리 교육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장애 아동을 일반 교육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통합적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사회와 부모, 아동이 직접 개입한 방안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고 통합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의 부각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 즉 전쟁이나 소요 사태, 대규모 인구 이동 중의 교육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위험 지역에서는 학교 테러나 성폭행이 빈번하며, 취약 계층의 주변화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이 교실에서 강제로 징집되어 최전방 병사로 활용되거나 간첩, 자살 폭탄 테러범, 성노예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여아는 이러한 분쟁 상황에 취약하다.

2000년 이후로 위기 상황 교육을 위한 국제 기구 네트워크 (INEE: Inter-Agency Network on Education in Emergencies)는 170여 개국의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는 광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2003년에 긴급 상황 시의 교육의 최저 기준을 수립하는 주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을 통해 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예산의 교육 자금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여전히 분쟁은 많은 아동에게 교육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2000-2015 성적표

목표 3 청소년 및 성인기술

적절한 학습 및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 및 성인층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게 한다.

글로벌 성적*

*75개국 데이터에 기반

목표에 현저히 미달

11%

목표 미달

35%

목표 근접

9%

목표 도달

45%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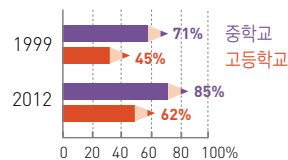
등록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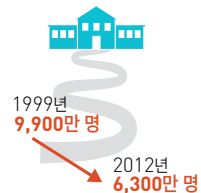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2배 이상 증가



총 등록률 증가



학교 밖 청소년 감소



구체적인 노력



중학교

94개국에서
무상교육 실시
27개국에서
2000년부터 의무화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 교육에 포함
다수의 국가가
고가의 입학 시험
중단

기술 직접 평가 기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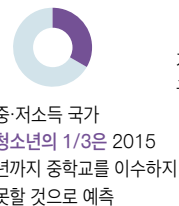
2000년 이후 HIV와 AIDS에 대한
이해 향상

지속적인
당면 과제

학교 밖 청소년



중학교 이수



기술

?
기술 유형에 대한
구분이 모호

청소년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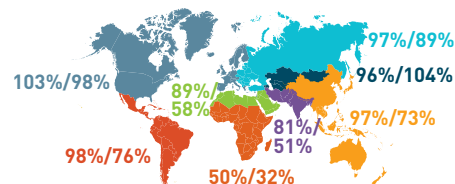
인구 감소 없음

제2의 교육 기회

더 많은 교육 참여를
위해 필수적

불균등한 발전

중학교/고등학교 등록률



빈부 격차

2000년 이후부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의 빈부
격차의 변화는 거의
없음

지역 격차

국소수의 국가에서만
지방-도시 간 중학교
교육 참여 격차를
현저히 감소(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Post-2015를
위한 권고

1. 중학교 교육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2. 제2의 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3. 2015년 이후 더 맹백한 기술의 정의 및 이에 대한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발달전의 여지가 있음

목표 3

청소년 및 성인기술

적절한 학습 및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 및 성인층의 학습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게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세 번째 목표는 교내에서 행해지는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연수나 일생 중 접하는 기타 기회와 같은 학교 밖 경험에도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목표 3의 이러한 광범위한 초점으로 인하여 명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목표의 부재와 생활 기술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2015 세계 현황 보고서(GMR)는 다음의 세 가지 기술에 역점을 둔다. 기초 기술은 취업이나 지속적인 훈련에 필요한 기술이다. 전문성 기술은 직업과 관련한 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문 및 직업 기술은 특정 직업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노하우로서의 기술이다.

기초 기술 습득의 기회 증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등학교 교육 등록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록이 현저히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소득 및 지역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특히 빈곤 가정의 아동을 비롯한 아동 다수가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등학교 교육 참여와 등록 유지,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많은 이주

아동은 국가에서 중등교육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다.

기초 기술: 중등교육 이수율의 참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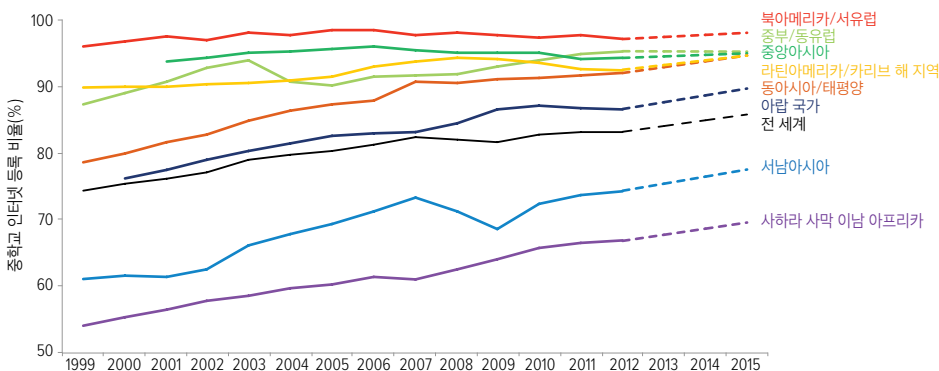
기초 기술은 일상적인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문해 및 수문해 능력을 포함한다. 중등학교에서 습득하는 기초 기술은 직업상의 승진, 적극적인 시민 의식 함양, 개인 보건에 대한 안전한 선택 능력 배양에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등교육 참여는 199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등록 학생 수는 5억 5,100만 명을 기록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29%에서 44%까지, 중소득 국가에서는 56%에서 74%까지 중등교육 입학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비 감면도 중등학교 등록 증가에 기여하였다. 중, 저소득 국가 107개국의 자료에 따르면, 94개국이 무상 중학교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초등교육 이수 비율 증가 역시 학습 지속 조건을 충족하는 최초 집단의 규모를 증가 시킴으로써 중등학교 등록에 기여하였다.

목표 3의 광범위한 초점으로 인한 명확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6: 다카르 기간 동안 진학 청소년 비율 12% 포인트 증가

전 세계 및 지역별 총 중학교 순 등록률, 1999-2012 및 2015(예상)



출처: 유네스코 통계국(UIS) 데이터베이스; Bruneorth (2015).

중등교육에서 사교육의 대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다.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개발도상국의 사립 중등학교 등록률은 15%에서 1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랍 국가와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졌다.

중등교육의 불평등 지속

중등교육의 보편화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며 소외 계층, 빈곤 계층, 시골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그 이후에 제공된다. 불공평한 중학교 교육 참여는 고등교육 참여에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나, 고등교육 불평등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학교의 보급이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 밖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중등학교 취학 연령 청소년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일부는 중퇴를 선택하고, 일부는 노동과 학업을 병행한다. 노동하는 학생의 경우 기초 기술 습득에서 뒤처지게 된다. 실제로는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노동 사실을 밝히기 꺼려 하기 때문이다.

이주 청소년의 기술 습득에 대한 요구 해결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인 시급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선진국 14개국과 개발도상국 14개국의 이주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선진국에서는 40%, 개발도상국에서는 50% 이상에서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아동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언어 교육 정책은 이주 청소년의 교육 및 이후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취학 연령이 지난 청소년 및 성인층 대상의 대안 교육 필요

많은 국가에서 형식교육 확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및 형식교육 기회가 차단된 성인층의 교육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대안 교육인 '제2의 기회' 및 비형식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방글라데시의 BRAC 프로그램은 학교 밖 아동을 초등교육에 편입하여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97%의 BRAC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정규 중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국립 개방 학교 교육센터인 NIOS(National

Institute of Open Schooling)에서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개방 기초 교육 프로그램(open basic education programmes)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직업 교육 과정이나 건강한 삶 프로그램(life enrichment programmes)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1년에 총 220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태국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3과 4를 결합한 단일한 국가 행동계획을 통하여 성인 문해 능력 향상 및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초 교육 증진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나 길거리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소외 계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전용성 기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목표 3에서 천명한 청소년 및 성인층의 적절한 학습 및 생활 기술 습득 기회 보장과 더불어 다카르 행동계획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모든 청소년 및 성인층이 직업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와 태도,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광대한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국제 평가나 국가 교육 체계의 보고서가 아닌 가치, 태도 및 학술 외 기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2015 세계 현황 보고서(GMR)에서는 보건 및 사회와 관련한 두 가지 생활 기술로 HIV와 AIDS에 관한 지식과 양성평등 인식을 조명하였다.

HIV와 AIDS에 대한 지식 개선 달성, 보편화의 과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9개국의 젊은 남성과 13개국의 젊은 여성의 HIV와 AIDS에 대한 지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HIV가 널리 퍼진 국가일수록 가장 많은 지식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에서 학교를 통한 더욱 심도 있는 HIV 교육이 이루어졌고 생활 기술 교육에도 충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성평등 인식 개선의 편차: 세계가치조사기관(World Values Survey)은 20년간 여성보다 남성에게 대학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와 모로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했으며 고학력 여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파키스탄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전문 및 직업기술: 접근법의 진화

직업기술은 중등교육이나 일반직업교육, 또는 전통적인 견습과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훈련을 포함하는 현장기반의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28개국에서 총 중등교육 등록 수에 비례하여 직업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아주 많거나 반대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12개국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16개국에서는 하락했다.

2000년에 열린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직업기술교육(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대한 지지자가 거의 없어 목표 3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필두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로 기술에 대한 정의가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직업훈련교육의 지지자들은 이제 기술훈련을 일반 교육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했고, 기초기술과 전용성 기술을 직업기술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 및 성인교육: 4가지 비교 사례

기회들을 신중히 배분하지 않으면, 성인교육은 이미 형식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음은 성인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4개 국가에서 나타난 다양한 결과이다.

브라질의 청소년 및 성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형식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에 이주민, 지방노동자 및 빈곤계층의 사람들, 노동자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하였으나 교육의 질이 낮았고 중퇴율이 높았다.

노르웨이에서는 2006년에 언어, 산수, 정보통신, 화법 등 노동자에게 특화된 쉬운 일반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계획을 발의하였다. 노르웨이의 성인교육시스템은 다양하다. 형식교육 외의 프로그램들로 '전통 고등학교', 교육협회,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훈련센터와 원격교육 등이 있다.

한국은 2007년에 성인교육의 편성, 개발 및 실행을 재수정하

였다. 평생교육도시를 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재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율이 2008년 26%에서 2012년 36%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관련기술을 촉진하는 4개 계획을 만들었다.

베트남에서는 2005년에 비형식 성인교육과 성인 문해 훈련이 전체 교육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성인교육과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참가자 수가 1999년에 50만 명이 조금 넘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약 1,00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많은 국가가 하드 및 소프트 스킬의 직접 평가에 주목

사회감성적 기술(soft skill)은 긍정적인 학교경험을 통해 학습될 수 있으며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현실화하는데 있어 인지 기술(hard skill)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직접 평가하는 예시로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와 현재 진행 중인 세계은행(World Bank)의 고용, 생산성 기술(STEP: Skills Toward Employment and Productivity)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결과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기술습득과 학습에 어떻게 기여하고, 습득된 기술이 개인의 고용기회와 시민참여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성인언어 및 산술능력과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였다. 결과는 개인이 학교를 그만 두어도 기술이 학습될 수 있으나,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일반프로그램 참여자들보다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고용, 생산성 기술연구(STEP)는 중소득 국가 주요 도시의 가정과 기업의 사례에 기반하여 독해능력과 일자리 안팎에서 사용되는 산술 및 컴퓨터활용능력을 포함한 특정기술을 조사한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소프트 스킬의 가치를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개방성'이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2008년에 베트남에서는 약 1,000만 명의 성인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00-2015 성적표

목표 4 성인 문해 및 교육

2015년까지 현재의 성인 비문해율을 50% 이상 개선하고, 특히 여성의 비문해율 개선이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성인에게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p>글로벌 성적*</p> <p><small>* 73개국 데이터에 기반</small></p>	<div> <div>목표에 현저히 미달</div> <div>32%</div> </div> <div> <div>목표 미달</div> <div>26%</div> </div> <div> <div>목표 근접</div> <div>17%</div> </div> <div> <div>목표 도달</div> <div>25%</div> </div>
--	--

목표 4

성인 문해

2015년까지 현재의 성인 비문해율을 50% 이상 개선하고, 특히 여성의 비문해율 개선이 강조되어야 하며, 모든 성인에게 기본적인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00년 이후의 성인 문해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발전들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특히 과거에 비문해자인지 아닌지 평가했던 것에 비하여 문해 기술의 연속체를 측정하는 경향은 많은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2015년까지 2000년 조사된 성인 비문해율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문해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성인 문해 목표의 진전은 다른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들보다 느렸다. 약 7억 8,100만 명의 성인들이 문해 기술의 부족을 겪고 있다. 성인 비문해율이 줄어든 것은 학교 갈 나이가 지난 성인들의 집단의 문해 기술 향상이라기 보다는 교육을 받은 젊은 집단들이 성장하여 성인 집단에 들어간 것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표 4를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보임

성인 문해 모니터링은 비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해라는 개념이 2000년도부터 쓰이기 시작되면서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1995에서 2004년까지를 기준으로 문해율이 95% 미만인 국가들의 지속적인 자진신고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73개국 중 17개국만이 2015년까지 자국의 문해율을 적어도 절반까지 줄일 것으로 보인다 빈곤 국가들은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이 먼 상태이다.

73개국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여성의 변화가 남성의 변화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즈음에 100명의 남자 대비 90명 이하의 여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모든 국가에서는 이 분야에서 양성균등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

국제적, 국가적 조사들이 문해에 관한 직접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

문해 기술에 대한 대부분의 정규 가구조사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다”와 “없다”의 간단한 이분법에 기초로 한다. 하지만 2000년부터 ‘문해’의 의미는 기술들의 연속체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 이후 각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는 성인들이 단순히 비문해자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문해력을 측정하는 등 조금 더 자세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2000년부터 두 유명한 국제 가구조사 프로그램인 인구통계 건강조사(DH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와 복합요인조사(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에서는 응답자에게 카드의 문장을 읽을 것을 요청하면서 직접적으로 문해에 관해서 조사하는 시도를 하였다. 직접평가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는 자체적으로 비문해자인지 아닌지를 신고했을 때의 추정치보다 많은 성인들이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25개의 높은 문해 수준을 가진 사회에 속한 16세에서 65세의 사람들 중 16만 6,000명을 조사한 결과, 고소득 국가들에서조차도 소수집단의 성인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몇 나라들에서 성인의 4분의 1 이상이 낮은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네스코 통계국(UIS)에서는 문해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LAMP: Literacy Assessment and Monitoring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문해력에 대해서 산문, 문서 읽기, 산술능력 등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측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다. LAMP는 요르단, 몽골, 팔레스타인과 파라과이의

2015년까지
17개국이
문해율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지역과, 시골지역의 성인들 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세 가지 수준의 문해력 성취도를 정의하였다. 이중 파라과이에서의 결과를 보면, 시골지역의 성인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산문읽기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 성인 문해 평가

문해력이 낮은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에서 문해력을 연속체로써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가구조사를 통해 “비문해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 2006년에 케냐에서 실시한 국민 문해력 조사(Kenya 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of 2006)를 예로 들면, 이 조사를 통해서 도시와 시골의 큰 차이를 발견하였고, 케냐 내의 성인 여성의 문해율은 59% 였는데 이는 유네스코 통계국(UIS)이 읽기 능력에 대한 자신신고를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보다 13 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며, 남자 성인의 경우는 64%로 유네스코 통계국(UIS)이 조사한 것보다 15 포인트나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질 집단 비교는 2000년부터 실질적인 성인 문해율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

문해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성인 문해율의 유용성은 서로 다른 시간대와 서로 다른 집단의 성인 인구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결과, 사실상 단 한 명의 성인도 문해력의 수준이 바뀌지 않아도, 전체 성인 문해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높은 문해력 수준을 가진 젊은 사람이 성인 집단에 들어오고 낮은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나이든 성인이 그 연령 집단 통계에서 빠진다면, 전체 문해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2000년의 20-30대와 2010년의 30-40대 동질 집단을 살펴본다면, 모든 변화는 학교 교육의 변화가 아닌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생활 기회를 통한 문해 기술 습득에 기인할 것이다. 2015 세계 현황 보고서(GMR)는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새로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몇몇 나라들은 젊은 여성의 문해율 부문에서는 느리지만, 확실한 발전세로에 올랐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런 분명한 발전은 동질 집단 조사 결과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말라위의 20세에서 34세 사이 여성 문해율은 2000년 49%에서 2010년 63%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하지만 2000년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여성과 동질 집단인 2010년 30세에서 44세의 여성의 문해율은 49%에 머물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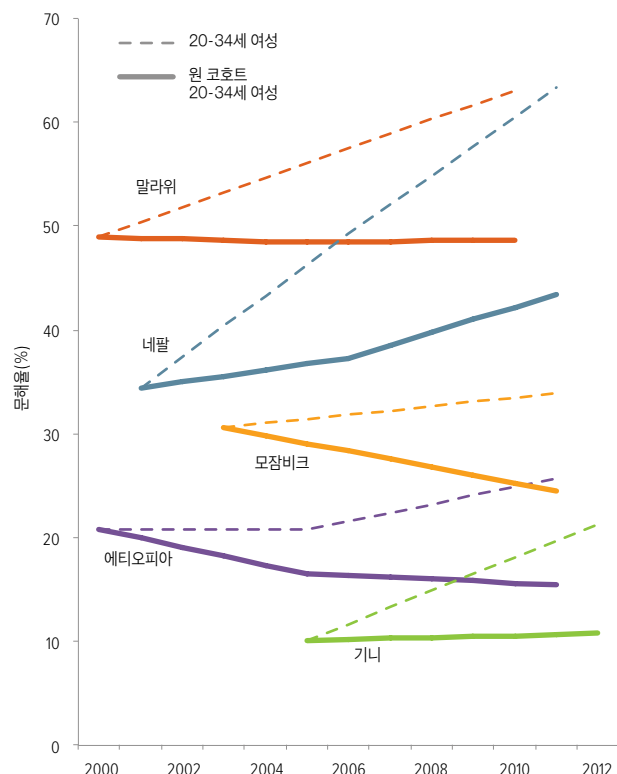
분석된 30개국의 대부분에서 특정 동질 집단의 문해력은 정체되었거나 문해력을 사용하지 않아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유일하게 네팔에서만 동질 집단 수준에서 지속적인 문해력 향상을 이룬 것이 지난 3번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네팔 정부가 2008-2012년에 시행한 국가 비문해자 퇴치운동(National Literacy Campaign)에 미화 3,500만 달러의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성인 문해의 제한적인 향상에 대한 설명

만약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학교 갈 나이가 지난 성인의 문해 기술이 향상 되지 않았다면, 2000년부터 실시한 성인 문해 기술의 향상을 위한 노력들의 영향에 대한 큰 의구심이 든다. 전 세계적인 정치공약의 규모, 문해 기술 운동의 실효성, 모국어 문해 향상 노력 프로그램의 범위, 문해 프로그램 수요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이 4개의 요소가 더딘 발전을 설명 할 수 있다.

표 7: 개발도상국에서 미미한 성인 문해 기술 개선

국가별 및 연령군별 여성 문해율, 2000 및 2010년경



참고: 1. 문해는 직접 측정하였다. 2. 모든 국가에서 실선은 20-34세의 여성의 첫 관측 시점부터 시작된다. 즉 말라위의 실선은 2000년에 20-34세였고 2010년에 30-44세가 된 여성을 뜻한다. 점선은 같은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라위의 점선은 2000년과 2010년에 20-34세인 여성을 뜻한다. 3. 2001년 네팔의 인구, 보건 조사는 기혼 여성만을 표본으로 삼았으나, 2006년과 2011년에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출처: 인구통계와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Barakat (2015)과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2014) 분석

성인 문해에 대한 공약의 모호

국제 사회는 25년 넘게 성인 문해를 향상시키겠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했다. 국제 사회가 선언한 목표들은 비문해를 소아마비처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세계 현황 보고서(GMR)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30개국의 국가 교육 계획을 분석한 결과, 성인 문해는 다른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들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몇몇 국제 기구들이 성인 문해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는 역량 부여를 위한 문해 사업(LIFE: Literacy Initiative for Empowerment)과 같은 계획을 실시하였지만,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 교육 전략 하에서 장기적 비전이 부족하였다.

문해율 캠페인과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

2000년부터(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역 단체들과 정부 기관들에서 문해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캠페인들은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나 몇몇의 캠페인들은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설정한 기한을 이미 넘어버렸다.

주요한 캠페인들은 위험을 동반한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증가시키고, 다양성의 수요를 항상 충족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캠페인에 사용되는 용어에서 흔히 비문해는 적절한 개입으로 근절 될 수 있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묘사된다. 이러한 태도는 비문해가 나쁜 것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

으며, 그 결과 낮은 문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문해해결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래로 전개된 비문해 퇴치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문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모국어 중요성 인식의 진전

2000년이래로 낮은 문해 수준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성인 문해 프로그램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도자들의 양면성이나 실행력 제약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 성인 문해를 향상시키는데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일상에서의 변화가 문해 수요로 이어지지 않아

문해는 교육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문해 기술을 사용하고,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제공을 필요하다. 이런 기회들은 2000년도부터 증가해 왔다. 세계 현황 보고서(GMR)는 농산물유통, 공공보건개입, 소액금액 금융 계획 그리고 수자원 관리 투자의 예를 조사하였는데, 문해 프로그램들이 일상의 기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한 인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해 기술 습득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

그러나 다른 양상의 변화 중 하나인 급격한 ICT의 보급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비록 아직까지 ICT가 문해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음에도 널리 보급된 핸드폰의 이점을 이용해 강력한 문해 환경과 읽기 습관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ICT와 휴대전화의 활용이 문해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0-2015 성적표

목표 5 양성평등

2005년까지 초, 중등교육에서 남녀 격차를 일소하며, 2015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달성한다.
이를 위하여 여아의 완전하고 동등한 양질의 기초 교육 기회 및 교육 이수를 보장한다.

<p>글로벌 성적*</p> <p><small>*초등교육에 대한 자료는 170개국, 중등교육은 157개국 데이터 기반</small></p>	<p>목표에 현저히 미달 목표 미달 목표 근접 목표 도달</p> <p>0.6% 10% 21% 35% 10% 7% 69% 48%</p> <p>초등교육 중등교육</p>
<p>성과</p> <p>✓✓</p>	<p>중등교육에서의 성별 간 격차 감소</p> <p>등록률이 남아 100명당 여아 90명 미만인 국가 = 30 → 19 1999년 (133개국 중) 현재</p> <p>권리 보장</p> <p>59개의 회원국 중 40개국에서 여성의 교육 받을 권리를 분명히 보장</p> <p>여아의 중등교육 이수</p> <p>2000년 남아 100 당 여아 81명</p> <p>2010년 남아 100 당 여아 93명</p>
<p>구체적인 노력</p> <p>✓</p>	<p>여아 교육 지지</p> <p>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지지</p> <p>재정적 지원</p> <p>일부 국가에서 여아 등록률 개선</p> <p>여성 교사에 대한 수요</p> <p>예) 네팔</p> <p>1999년 23%</p> <p>2012년 42%</p> <p>(이중 60%는 신입 교사)</p>
<p>지속적인 당면 과제</p> <p>✗</p>	<p>조혼과 청소년기의 임신</p> <p>교사 훈련</p> <p>성 인지적인 접근을 결합한 훈련이 확대되어야 함</p> <p>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별기반 폭력</p> <p>양성평등</p> <p>양성평등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려움</p>
<p>불균등한 발전</p>	<p>최빈층 여아의 등록률 여전히 최저</p> <p>파키스탄에서는 100명의 남아가 학교를 갈 때 70명 이하의 여아가 학교를 간다.</p> <p>학습 부진</p> <p>여아는 수학</p> <p>남아는 읽기</p> <p>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성별 간 격차를 보이는 국가들</p> <p>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지역 그리고 다른 빈곤국가 (특히 방글라데시, 미얀마, 르완다)의 중등교육에서 발생</p>
<p>Post-2015를 위한 권고</p>	<p>1. 학교는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또한 교습과 학습은 학생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긍정적인 성별 관계를 촉진하여야 한다.</p> <p>2. 성별 간 격차가 만연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p> <p><i>더 많은 노력이 필요</i></p>

목표 5

양성평등

2005년까지 초, 중등교육에서 남녀 격차를 일소하며, 2015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달성한다. 이를 위하여 여아의 완전하고 동등한 양질의 기초 교육 기회 및 교육 이수를 보장한다.

2000년부터 초등교육에서의 양성균등(gender parity)에 대한 진보는 나라별로 상이 하였다. 2005년까지 이루려고 했던 초등학교 등록률 비율에서의 양성균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2015년까지도 단 69%의 나라들만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에서는 단 48%의 나라들이 2015년까지 등록 비율에서 남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평등은 남녀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양성균등보다 더 복잡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양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아와 남아의 교실과 학교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 교육기관 안에서의 그들의 성취, 미래에 대한 열망 등의 더 구체적인 질적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성균등을 향한 진보

1999년 이래로 초등학교 등록률에서의 양성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1999년과 2012년에 수집한 161개국의 자료에 따르면 성 평등지수(GPI: Gender Parity Index, 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로 양성균등을 측정한 결과, GPI 지수 0.97부터 1.03 사이의 나라는 83개국에서 104개국으로 증가하였다. GPI 지수가 0.97 이하로 남아보다 여아들의 등록률이 낮은 국가들의 수는 73개국에서 48개국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까지 양성균등을 이루지 못한 나라 중에서 다수가 여아들이 더 낮은 등록률을 기록하고, 오직 9개의 나라에서만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등록률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

서남아시아에서는 GPI 수치가 1999년 0.83에서 2012년 1.00으로 증가 함으로써 초등학교 등록에 대한 성별 간 격차를 줄이는데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또한 아랍 국가(GPI가 0.87에서 0.93으로)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GPI가 0.85에서 0.92으로)는 성별 간 격차를 어느 정도 줄였지만 양

성균등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아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았던 국가들의 진보

1999년부터 여아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았던 많은 국가에서 초등학교 등록률의 성별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큰 발전이 있었다. 1999년에 조사된 161개국 중에서 GPI가 0.90 이하인 나라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20개국을 포함하여 33개국이었으나, 2012년에는 16개국으로 감소하였다.

극빈층 여아의 등록률은 여전히 최저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를 간 적이 없는 아동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여아가 남아보다 적게 학교를 가고 특히 극빈층 아동에서 이 격차는 심각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43%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중 남아가 37%인 반면, 여아는 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여아들의 성장은 남아들과 동등

등록 후에는 여아의 상급 학년 진학률이 남아와 동등하거나 더욱 우세하다. 많은 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의 재학률을 살펴보면 여아의 재학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남아들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과 2011년에 수집한 68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5학년 재학률이 평등하거나 GPI 수치에서 남아가 적은 나라는 2000년에 57개국이었으며, 2011년에는 58개국이었다.

가난은 초등학교 졸업에서의 성별 간 격차를 심화

부유층의 아동보다 빈곤층의 아동 집단에서 초등학교 졸업의 양성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다. 라오스, 모잠비크, 우

여전히
극빈층일수록
초등학교
이수에서 성별 간
격차가 심각하다.

간다와 같은 나라에서 1999년부터 상류층의 여아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이수율에서의 양성균등을 성취하였지만, 빈곤층 여아들의 이수율은 여전히 빈곤층 남아들과 비교하여 훨씬 큰 차이로 뒤쳐져 있는 상태다.

양성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일반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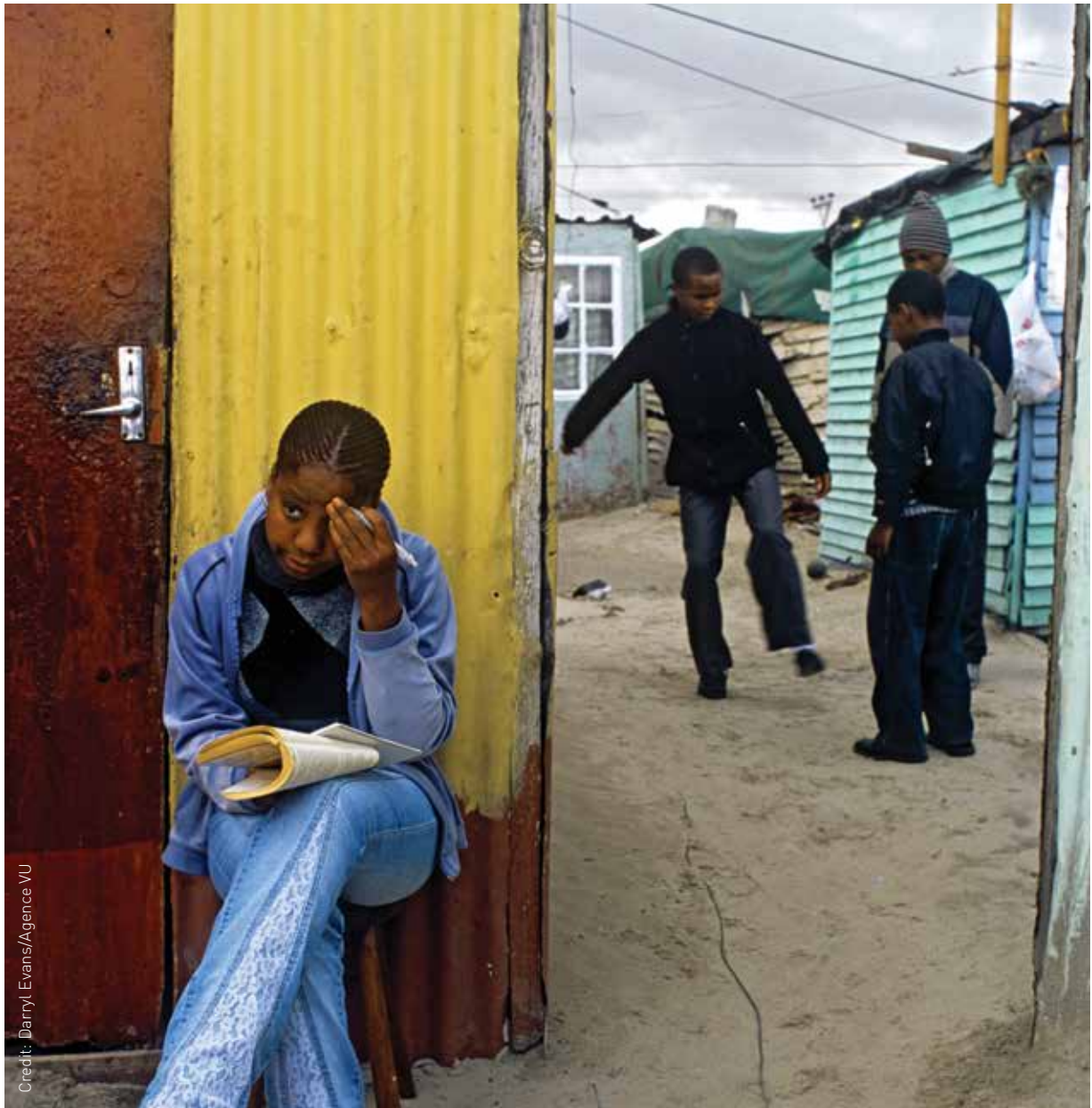
많은 국가에서 초등교육보다 중등교육에서 성별 간 격차가 더 많이 발견된다. 2012년까지 조사된 국가 중 63%는 중등교육 등록에서의 성별 간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성별 간 격차에서 남아가 낮은 국가와 여아가 낮은 국가의 비율은 각각 약

32%로 동일하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아가 계속해서 중등학교 등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100명의 여아가 중학교에 등록할 때 93명의 남아만이 등록하여 199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현 가능한 환경 촉진

지속적으로 시행된 전 세계적인 지지는 교육에서의 양성균등 및 양성평등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와 시민 사회의 지원을 끌어냈다. 각국 정부는 법적, 정책적 개혁을 시행하고, 교육 제도적 구조와 계획, 예산관리에서 성 주류화(gender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 등록률은 여아 100명당 남아 93명이다.



Credit: Darryl Evans/Agence VU

mainstreaming: 공공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입법, 추진 및 모든 수준에 있어 양성애 관련된 함의를 반영하는 것)를 도모하였으며, 사회 내부에 충분한 지지를 형성하였다.

성 주류화와 예산 편성을 통한 주안점 제시

성 주류화는 양성평등을 분리된 문제나 한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기관과 사회의 구조와 관행 내에 핵심 이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전신인 유엔여성개발기금(UN Development Fund for Women)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성 인지(gender responsive)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변화를 추동할 자원 부족, 기관 내 성 단위(gender units) 소외, 불충분한 지지와 지원, 뿌리 깊은 차별로 인한 실현의 제한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

법 제정 및 정책 개혁을 통한 추진 지원

유네스코의 최근 개관에 따르면, 헌법, 법률 및 정책 제정시 여아와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성차별 금지를 분명히 언급한 국가는 59개국 중 40개국이었다. 그러나 사회 제도로 인해 양성평등은 지속적으로 저해를 받고 있다. 차별적인 상속법이나 관례, 조혼의 성행과 같은 일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한다.

수요의 증가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지원

정부, NGO, 시민 사회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성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사회 동원과 지지 캠페인을 통하여 여아의 교육의 가치와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진하고, 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장려금을 제공하며, 조혼과 청소년기 임신을 근절하는 세 가지 방안을 활용하였다.

여아의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동원

광범위한 정책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모의 인식을 바꾸고 여론을 형성하여 여아의 교육을 지지하는 전략을 시행하였다. 효과를 보인 캠페인들은 여러 부문에서 파트너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냈으며, 국가적 계획과 정책이 이를 지원했고, 풀뿌리 시민 조직과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연계시켰다.

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감면

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아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택적 학비 면제와 장학금을 통해 교육 과정의 직접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며, 현금 지원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에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시골 여아를 위한 중등학교 지원금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호평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 부유한 저소득 가정의 여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조혼과 청소년기의 임신

조혼과 청소년기의 임신은 여아의 교육 참여나 지속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세계의 조혼 근절 추진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2000년에서 2011년까지 41개국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세의 여성 중 30% 이상이 18세 또는 그 이전에 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의 근절은 법제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1974년 인도네시아 국가 결혼법의 평가에 따르면 법안 도입 이후에도 조혼 추세는 특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조혼의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에서는 법 개정과 지지 운동, 지역 사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존에 성행하던 조혼을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20% 이상이나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교 기반시설의 확대와 개선

양성균등과 양성평등의 목표 달성은 학교 기반시설의 가용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여학교를 포함한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 시설(특히 수도와 위생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여아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다.

통학 거리의 감소

소외된 지역 사회 내의 학교 건설이 여아들이 통학 거리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초등학교를 건설한 마을 중 임의로 선택된 아프가니스탄의 구르주에서는 초등학교 순 등록률이 42% 포인트 늘었으며, 여아의 등록도 17% 포인트 늘어 남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성별 간 격차를 해소하였음이 밝혀졌다.

학교의 건설 및 시설 개선은 여아의 출석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개도국의 교육 정책에서 남아의 등록 및 이수 문제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수도 및 위생 시설의 개선

여아를 위한 안전하고 분리된 위생 시설 제공은 여아의 출석률을 높이고 평등한 학교 환경을 촉진하는 핵심 전략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학교 수도와 위생 공급이 개선되었지만, 그 속도는 더디다. 조사된 126개국에서 적합한 위생 시설을 가진 초등학교의 평균 비율은 2008년 59%에서 2012년 68%로 증가하였다.

남아들의 참여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적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교육 과정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이수를 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할 위험이 더욱 높다는 점이다. 남아들의 높은 중퇴율은 성별 간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2009년과 2010년에 브라질, 칠레, 크로아티아, 인도, 멕시코, 르완다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일수록 차별적인 성 인식이 나타나며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고, 이들이 아버지일 경우 보육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남아의 중퇴 위험을 높이는 몇 가지 요인

빈곤과 노동 의무 또는 희망으로 인해 조기 중퇴하는 남아의 수가 상당하다. 늦은 입학, 저조한 성과, 이에 따른 학교의 관심 부족을 비롯하여 민족 및 기타 형태의 소외 요소는 남아의 중퇴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아의 학교 중퇴 관련 정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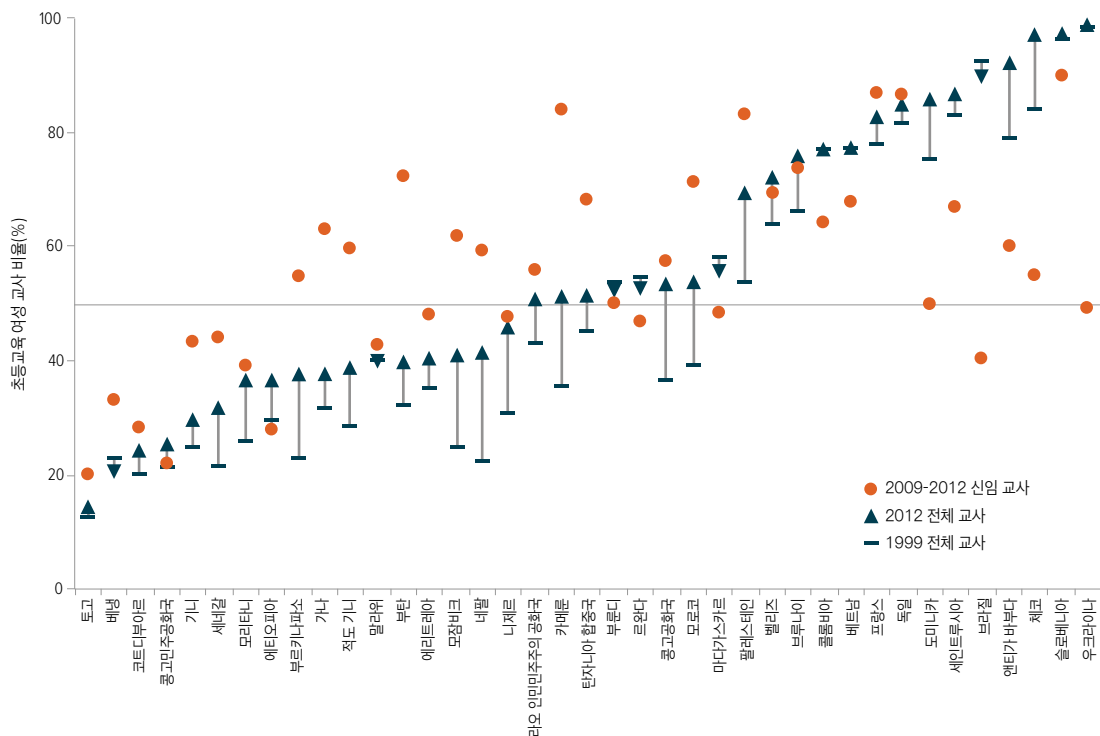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정책은 남아의 학교 등록과, 이수율 개선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아들이 심한 양성불평등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도 동일하다.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국가 간에 멘토링이나 재도전 기회, 훈련, 학교 중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 대화를 포함한 전략과 국가 주도 개입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등한 학교 및 학급 환경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 교육 성과 및 외부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특히 여아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교사를 비롯한 교사의 양적 및 질적 개선,

표 8: 1999년 이래 초등교육 교사 중 여성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채용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초등교육 여성 교사 비율, 1999, 2012; 신규 채용 여성 교사 비율, 2009-2012



출처: 부록, 통계표 8(인쇄본), 10A(GMR 웹사이트); UI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여 『EFA 세계 현황 보고서』, 작성팀(2014) 분석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성별에 대한 편견 퇴치, 훈련을 통한 성 인지적 학습 문화 조성, 성별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근절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필수적이다.

여성 교사 고용

여성의 학교 등록에 사회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는 국가일수록 여성 교사의 존재는 부모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완화하고 여아의 학교 교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여성 교사의 비율은 1999년 58%에서 2012년 63%로 증가하였다. 반면 중등학교에서는 전 세계 평균이 변동 없이 52%를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사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비교적 중요한 직책으로 진급되는 비율이 더 적다.

수업 중의 실천을 위한 성 인지적 훈련

교실에서 남아와 여아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 관습 및 기대로 인해 성 편견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여아와 남아의 의욕, 참여도,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수업 관찰을 시행한 결과 남녀 교사 모두 남아와 더 잦은 상호작용을 했으며, 그 결과 여아의 소극적인 태도를 촉진하였다. 포용, 성 인지적 교육학, 학습 관리에 대한 교사 교육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 보다 우호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고 적용과 감시가 미비하며,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양성평등 고취를 위한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혁

많은 국가에서 성별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속에는 성별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부분적 원인으로 정치적인 의지와 넓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성 인지적 교육 과정이 긍정적인 성별 간 관계의 학습과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포괄적인 성교육은 양성평등 고취를 위한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적 및 생식적 건강을 동반하는 성역할을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교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근절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학교 환경에 만연해 있다. 남아들은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아는 남학생들이

나 남성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 혐의로 인한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 또한 염려가 되는 분야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교내 성별에 기반한 폭력(SRGBV: school-related gender-based violence), 특히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다. 남자와 남아들을 대상으로 비폭력을 촉진하는 여아들의 동아리와 프로그램들은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유행에 대한 인식의 증가가 실제로 폭력을 줄이는 효과적인 행동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증거는 미미한 실정이다.

학습 성과의 평등 지원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양성불평등뿐만 아니라 학습 성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역별, 국제적 교육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읽기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고, 수학에서는,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남아가 여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반면 과학에서는 성과의 편차가 다양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아와 여아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관찰 되지 않는다.

빈곤한 환경의 여아가 직면하는 성취 면에서의 불이익

여아가 오랫동안 동등하게 교육에 참여하는 데 장애를 겪어 온 일부 빈곤국에서, 여아는 여전히 중요한 기초 기술 습득에 불이익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의 시골 지역에서 5학년 학생의 성별 간 격차는 미미하며 여아가 우세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아를 고려할 경우, 10-12세 아동에서 여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빈곤한 미개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남아의 학습 부진 근절

2000년 이래, 특히 읽기 부문과 관련한 남아의 학습 부진은 우려할 만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계획을 보유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전용성 기술 강조, 능동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 전략, 개인 멘토링과 목표 설정, 존중과 협력을 독려하는 학교 기풍 조성 같은 교수 및 학습에 대한 전략과 소규모 개입이 남아의 학습 부진을 근절할 가능성이 있다.

교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교사의
비율이 낮아진다.

2000-2015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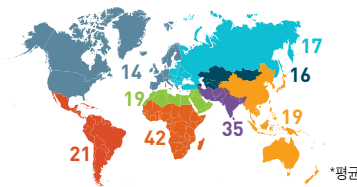
목표 6 교육의 질

모든 교육 분야의 질적 수준을 혁신하고, 특별히 문자 문해, 수문해, 그리고 필수적 생활 기술의 교육에 있어 인식, 측정 가능한 학습 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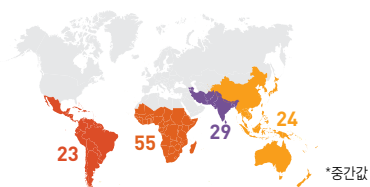
글로벌 성적*

*조사된 국가 데이터 기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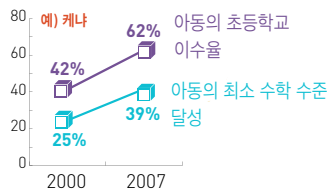
초등학교에서 훈련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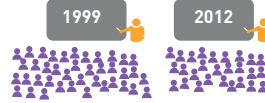


기회와 학습
절충 필요 없음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146개국 중 121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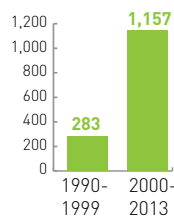
콩고와 말리의 등록은 2배로
증가하였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10명으로 감소함



구체적인 노력



국가 수준 평가를
통한 학습 성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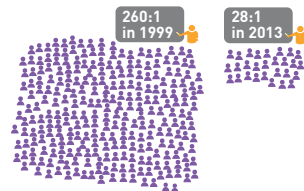
선별된 사회 보호 프로그램



선별된 사회 보호 프로그램
멕시코에서 취약 계층의 아동
및 성인 대상의 학습 성과
개선

교사 훈련 개선 정책

네팔에서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의
학생/교사 비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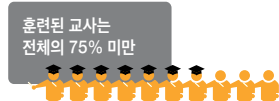


지속적인 당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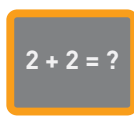


훈련된 교사 부족

2012년 기준 국가 중
3분의 1에서



학습 결손 조기 시작



기초조차 학습하지
못한 아동 다수

학습 자료 부족



교과서, 교수 자료,
교실 설비

불균등한 발전

훈련된 교사



앙골라, 베냉,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남수단에서

다중언어 교육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도시와 시골의 격차



라틴아메리카 8개국은
개선된 반면 6개국은 학습에서의
격차 존재

Post-2015를 위한 권고

1. 잘 훈련된 교사, 개선된 학습자료, 관련 교육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2. 양질의 교육과, 공평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평가가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시도 해야함

목표 6 교육의 질

모든 교육 분야의 질적 수준을 혁신 하고, 특별히 문자 문해, 수문해, 그리고 필수적 생활 기술의 교육에 있어 인식, 측정 가능한 학습 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한다.

다카르 회의 이후 많은 국가가 교육 참여율에 있어 상당한 증가를 달성하였으나,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추진 속도는 일정하지 않았다. 교육의 질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post-2015 글로벌 계획에서 이들이 더욱 중심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14 세계 현황 보고서(GMR)에서 제시하였던 2억 5,000만 명의 아동은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으며, 이중 1억 3,000만 명은 학교에 다닌 기간이 4년 이상이었던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교육 참여는 균등한 학습 수준을 동반

학교 등록자 수가 늘어나면 소외 계층, 장애나 영양실조를 겪는 아동, 빈곤 계층의 아동이 등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학교 교육에 새로 유입되는 이러한 아동의 경우, 문해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등록 증가가 학습 수준 저하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지역 및 국제적 학습 평가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몇 국가에선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입학 및 학업 이수 아동의 수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습 성과는 전과 동일하거나 향상되었다. 중등 교육에서도 교육 참여와 학습의 균등성이 나란히 증가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15세 청소년 등록률이 거의 12%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동일 기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서 수학 평균 점수가 385점에서 413점으로 증가하였다.

학습 성과의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략에는 전국적인 학습 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표본 조사에 기반한 대규모의 학습 평가가 필요하다. 다카르 회의 이후 더 많은 국가 수준의 평가가 시행되어, 1990-1999년 총 283개에서 2000-2013년에는 1,167개로 증가하였다. 부유한 국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도 이러한 평가를 널리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국가 수준 평가는 교육 당국이 학생의 지식 수준과 역량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54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가 수준의 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 정책의 범위는 매우 넓어, 교육 과정 개혁과 교과서 개정부터 교사 교육, 지속적인 훈련, 교수 자료 개발, 학부모 참여, 성과 기준, 부실한 성적의 학교를 지원하는 자원 분배까지 포함되었다.

시민 주도 평가의 입지 강화

국가 교육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활동에 개입하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 주도형 가계 기반 아동 문해 및 수문해 평가는 2005년 인도에서 시작되어 파키스탄에서는 2008년부터, 케냐,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는 2009년부터, 말리는 2011년, 세네갈은 2012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총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를 활용한 저학년 학습 진단

2007년에서 2014년 중반 사이에 60개국 이상에서 저학년 읽기 평가(EGRAs: Early Grade Reading Assessments)

다카르 이후
1,000건 이상의
국내 학습 평가가
시행되었다.

를 1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2014년 중반기까지 20개국 이상에서 저학년 수학평가(EGMAs: Early Grade Mathematics Assessments)를 실시하였다. 두 평가는 학교에서 2-3년간의 수업을 듣는 동안 한 단어도 읽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저학년 아동에게 기초적인 산수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많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EGRA와 EGMA의 결과는 학생이 읽기와 수학의 최소 학습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여자들이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및 국제 평가를 통한 학습 불균형 측정

국가 수준의 평가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 성취도의 국가 간, 시스템 간 비교에 참여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인 'PERCE, SERCE 및 TERCE'¹를 통해 조직이나 교과 과정 및 가족 배경 등 학생의 학업 능력과 관련된 요소와 불균형의 감소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가 발전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사회적 신분의 불평등과 문해 및 수문해 능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15세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써 정책 개혁과 계획을 실시하였다. 학습 평가는 많은 국가의 교육 과정 및 교육 개혁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지역적, 국제적 평가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평가의 비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오히려 기초 학습 아동이 현저히 적은 빈곤국의 참여 의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검사하는 범교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과목의 내용들을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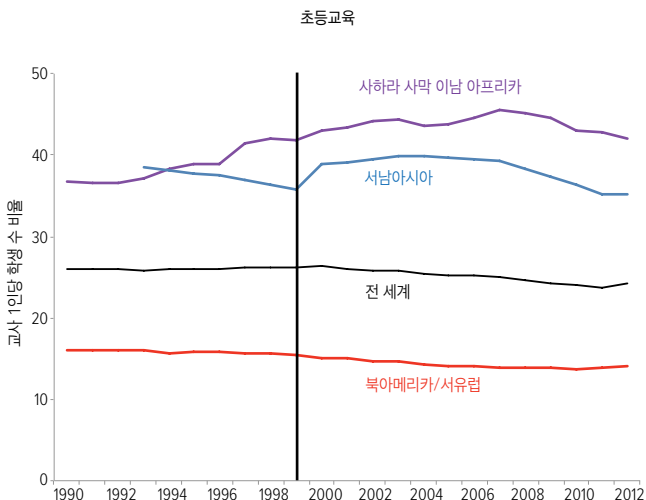
교사에 대한 투자가 필수 요소

다카르 행동계획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 달성을 위하여 각국 정부에서 의욕적인 숙련 교사의 증가 및 적절한 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질의 교사를 육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가 교사 교육을 개선하고 공평하게 임용하며, 적절한 급여 형식의 장려금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진로를 창출해야 한다.

충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 부족

지역 간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조사에 따르면 161개국 중 29개국의 2012년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은 40:1 이상이였으며, 이중 24개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었다. 1999년과 2012년에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은 146개국 중 121개국에서 감소하였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40:1 이하인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105개국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30:1 이상의 비율을 보인 국가는 18개국이었다. 199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말리, 미얀마에서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으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동일하거나 감소하였다.

표 9: 지역 간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전 세계 및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사 비율, 1990-2012



출처: 유네스코 통계국(UIS) 데이터베이스

2015년까지 초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초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수는 4백만 명으로, 이중 260만 명은 은퇴자 및 이직자, 사망자, 환자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 인원이며, 140만 명은 등록 증가로 인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40:1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원이었다. 일부 지역 및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초등 교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저한 차이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교사 충원이 필요한

2015년까지
모든 아동의
학교 교육을 위해
교사 40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1. 각각 제1차, 제2차, 제3차 지역비교해석연구. 라틴아메리카의 교육품질평가연구소(LLEE: Laboratory for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에서 시행.

지역의 63%를 차지한다. 교사 총원이 필요한 93개국 중에서 2015년까지 달성이 가능한 것은 29개국뿐이며, 나머지 64개국은 여전히 교사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된 교사의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

교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고 의욕적인 교사들로 인한 교사의 질적인 향상도 중요하다. 많은 국가가 자격 미달의 교사를 임용하여 교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2012년에 수집한 91개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훈련을 받은 초등 교사 비율은 기니비사우의 39%부터 95% 이상을 지닌 31개국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46개국에 대한 예측 결과, 2015년까지 12개국에서는 국가 기준 훈련을 받은 교육 인력이 75%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사 임용의 불균형 해소 필요

총 교사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평균은 국가 내 교사 임용의 불균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설립과 비정부 기관설립 학교 사이에 일반적으로 뚜렷하고 지속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콩고와 르완다, 우간다를 포함한 일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공립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사립 초등학교에 비해 30명 이상이 더 많았다 빈곤 지역 학교 학생들은 부유한 지역에 비해 훈련이 덜 된 교사들에게 교육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년간 각국 정부에서 교사 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배치, 기숙사와 재정 혜택 및 빠른 지급 등의 장려 제도, 현지 채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계약 교사 채용의 증가로 인한 우려 증가

학생들의 등록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교사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개도국의 정부들은 상당수의 계약 교사를 모집하였다. 2000년 말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는 정규 교사보다 임시 계약직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계약직 교사는 정규 교사들보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 적은 급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훈련을 받지 않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계약직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 같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 니제르와 토고에서는 계약직 교사들이 5학년 프랑스어와 수학 학습 성취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 부정적인 영향을 모

두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말리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계약직 교사들은 학부모 및 공동체 개입이 강한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교수 및 학습의 성공과 가용 자원의 관련성

양질의 교수 및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삼 요소는 '학습 자료의 공급, 분배 및 사용,' '적절한 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물리적 환경,'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이다.

알맞은 교수 및 학습 자료 활용 확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교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교육정책에 영향을 끼쳤으며,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되고 있다. 중앙 조달 및 분배 시스템은 민간협력사업으로 대체되고 있고, 국제 공동체 역시 많은 개도국의 교과서 개발 및 분배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의 갱신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교육과 교과 영역에서 최신 추진 상황에 따라 시행된다.

아동 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

많은 아동이 식수, 위생 시설, 깨끗한 화장실이 부족하고 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차별이나 괴롭힘, 심지어는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 지난 15년간 몇몇 국가가 아동 친화적인 학교 모델을 채택하였지만 가이아나,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태국의 아동 친화적인 학교를 평가한 결과, 이 모델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부실한 학교 기반시설, 관리 소홀 및 학교장과 교사 대상의 적절한 훈련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었다.

교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유의미성 증대

교육 시간을 연장하면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노출을 증대시켜 상당한 학습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육을 연간 850-1,000시간으로 구성하라는 것이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지만, 지난 10년간 전 세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균 교실 수업 시간은 약간 감소하여 1,000시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에서, 특히 빈곤 지역에서는 교사들의 잦은 결석과 뒤늦은 교사 임명, 현지 교사 교육훈련이나 파업, 무력 분쟁 등이 수업일수에 영향을 끼친다.

교사 임용
불균등으로
인하여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된다.

교수 및 학습 과정의 중요성

양질의 교육에 기여하는 교수 및 학습의 실재를 포괄적이며 적절한 교육 과정, 교육학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법, 아동의 모국어 사용, 적절한 기술의 사용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적절한 교육 과정 개발

경제적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이 커짐에 따라 각국 정부의 교육 과정 개혁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내용에 대한 지식보다는 역량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다. 또한 교육 내

용을 개인, 공동체,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도록 만드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육 과정 계획에서 제외되어, 하향식 절차로 인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 개혁 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교실에서 개혁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도 부족했다.

효과적인 교수 전략 채택

지난 10년간 교사 중심적 수업 방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변화가 일어났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원 환경, 교사 훈련 및 준비, 교과서 및 교수 자료의 부족과

지역적 맥락에서
적합한 교수
전략 채택이
학습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Credit: Poulomi Basu

너무 큰 학급 규모 등이 교수법 실천의 장애가 된다. 교사들이 배웠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적 맥락에 맞는 새로운 교육 전략을 적용한다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다국어 언어 정책으로의 이행

교육 언어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언어들은 교수 및 학습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어를 더욱 확산시키는 경향이 일반적인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중 언어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나 교육자들은 지역 언어를 사용할 경우 교육적인 발전과 취업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을 통한 학습 지원

ICT는 교수 및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연구를 통해 그 영향력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교육 체계와 ICT의 효과적인 통합은 어려운 일이다.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컴퓨터 보조 학습을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없는 국가가 많다. ICT의 효과는 훈련된 교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ICT기반의 학습으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컴퓨터와 같은 수준의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 보편적으로 네트워크

크가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모바일 기기가 인터넷 접속 및 동영상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거버넌스 분권화

의사 결정 권한을 학교에 양도하는 것은 교장과 교사, 학부모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교육 분권화는 학교 및 지역 공동체 간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분권화 전략은 불균등하게 시행되었으며, 결과는 재정 할당이나 인적 자원, 강력한 학교 리더십, 학부모의 개입과 정부 지원 등의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사립 기관이 교육의 질에 미친 영향

사립학교 교육은 2000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립학교의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학습 평가에서 더욱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환경에 속해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부유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더 나은 인맥을 제공하는 학교의 결합이 해당 집단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공립학교는 취약 계층이 모이는 학교가 된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오히려 사립학교들은 좋은 시험 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립학교들이 교육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2000-2015 성적표

재 정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강력한 국내외 정치 공약을 동원하고, 국가 행동계획을 개발하며 기초 교육 투자를 현저히 증가시킨다.

<p>글로벌 성적*</p> <p><small>*조사된 국가 데이터 기반</small></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1999년, 116개국 자료 기반</p> <p>18 개국이 GNP의 6% 이상을 교육에 배정</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12년, 142개국의 자료 기반</p> <p>39 개국이 GNP의 6% 이상을 교육에 배정</p> </div> </div>
<p>성과</p> <p>✓✓</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교육 부문 지출 증대</p> <p>빈곤 국가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에서 (브라질, 에티오피아, 네팔)</p>  </div> <div style="width: 30%;"> <p>시민사회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성공</p> <p>예) 필리핀에서 교과서의 효율적인 분배로 184만 달러 절감</p>  </div> <div style="width: 30%;"> <p>교육 지출 우선순위 배정</p> <p>64%의 국가가 탄탄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달성</p>  </div> </div>
<p>구체적인 노력</p> <p>✓</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투명성과 책임성</p> <p>시민사회단체가 중요성 강조에 기여</p>  </div> <div style="width: 30%;"> <p>지출의 증가</p> <p>38개국에서 1% 상승 또는 그 이상 (1999~2012 국민소득 대비 비율)</p>  </div> <div style="width: 30%;"> <p>지출 격차 감소</p> <p>30개국에서 초등학교에 쓰는 지출과 고등학생에게 쓰는 지출 격차 해소</p>  </div> </div>
<p>지속적인 당면 과제</p> <p>✗</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학습 자료 비용</p> <p>아프리카 12개국에서 학습 및 교수 자료 비용은 가계 예산의 56%를 차지</p>  </div> <div style="width: 30%;"> <p>정부와 공여자 기금 조성</p> <p>초등교육 외에는 EFA 목표와 관계없는 부문에 지출이 상당함</p>  </div> <div style="width: 30%;"> <p>인도주의적 호소</p> <p>2013년 인도주의적 호소로 인해 조성된 기금 중 단 2%만 교육에 사용</p>  </div> </div>
<p>기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자원 투입</p> <p>형평성 및 효율성 개선 필요</p>  </div> <div style="width: 30%;"> <p>원조의 더욱 효과적인 투입</p>  </div> <div style="width: 30%;"> <p>새로운 방식의 기금 조성</p> <p>자원 부족을 겪는 교육 영역에 기금 조성 (민간 투자, 기업 스폰서 등)</p>  </div> </div>
<p>Post-2015를 위한 권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와 공여자가 유치원 교육, 제2의 기회, 성인 문해와 같이 간과되어 온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2. 지출 방식의 이해를 위한 진단 도구의 개선이 필요하다. <p style="text-align: right; border: 2px solid red;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추가적인 노력 필요</p>

8 장 재정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강력한 국내외 정치 공약을 동원하고, 국가 행동계획을 개발하며 기초 교육 투자를 현저히 증가시킨다.

다카르 행동계획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의 진전을 가속화하고자 정부와 공여자의 경제적 공약의 현저한 증대를 요구하였다. 다카르 행동계획은 공여자들이 기초 교육 원조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달성이 좌절되는 국가가 없도록 한다는 다카르 공약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 기간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여국은 공약 이행에 실패하였다. 다수의 저소득 국가가 초등교육에 대한 교육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할 만한 성과이나, 일반적으로 교육을 우선순위에 둔 지출의 규모가 더욱 커져야 한다. 다른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에 대한 정부와 공여국의 재정적 지원과 추진 성과는 미미하였다.

다카르 회의 이후의 각국의 EFA 재정 공약 변화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주요 재정 지원 주체로 지목된 것은 각국의 정부였다. 그러나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걸어, 국내 공공 지출로 인해 외부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2006년 ‘모두를 위한 교육(EFA)’ 고위급회의에서는 각국 정부에서 국민총생산(GNP)의 4-6%의 교육 부문 지출, 즉 정부 예산의 15-20%를 교육 부문에 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예산 배정에서 교육 부문을 우선시하는 것의 성과는 다 달랐다. 전 세계적으로 2012년 국민총생산(GNP)에서 교육에 투자된 금액의 비율은 5%였으며 저소득 국가의 평균 비율은 4%였다. 조사된 142개국의 나라 중, 저소득 국가 14개국과 중하위

소득 국가 18개국을 포함하여 96개국이 국민총생산(GNP)의 4% 이상을 교육 부문에 지출하였고, 이중 39개국은 6% 이상을 지출하였다.

교육 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및 등록 증가율과 동일하지 않음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의 경제 성장은 교육 부문 공공 지출의 실질 성장을 동반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교육 부문 공공 지출이 경제 성장률 평균 4%보다도 높은 연평균 6.1%로 성장한 반면, 서남아시아에서는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연간 경제 성장률이 평균 4.5%를 기록할 때 교육 부문 공공 지출은 매년 4.9%를 약간 상회하는 선으로 증가했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1999년 이래로 각국 정부의 교육 부문 지출의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2년 전 세계 평균은 13.7%로 15-20%라는 목표에 근접했지만 달성하지는 못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부의 교육 부문 지출이 18.4%로 가장 컸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17.5%), 서남아시아(12.6%)가 그 뒤를 이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낮은 교육 예산 배정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치원 교육 지출은 전체 교육 부문 공공 정부 지출 중 4.9%에 불과하였다.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는 유치원 교육에 쓰인 교육 예산이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불과 0.3%밖에 되지 않았다.

2012년
GNP에서
교육에 사용된
비율은
5%이다.

초등교육 재정 지원 추세에 현저한 편차가 존재

‘모두를 위한 교육(EFA)’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교육 목표는 양질의 초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를 강조하고 초등교육 예산 투자 증대와 우선순위 설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과 2012년의 56개국의 초등교육 정부 지출 비율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단 16개국뿐이었다.

빈곤국에서 초등학교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급여

저소득,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교사의 급여가 초등교육 전체 경상지출 중 평균 82%를 차지하고 있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평균 64%였다. 이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질과 효율성 목표 등 다른 영역에 자원 배정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난다. 2003년의 세계은행 조사와 2004년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우선추진구상 지침에서 초등학교 경상지출의 3분의 1을 급여 외 지출에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2년 중, 저소득 국가 36개국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 예산 중 교과서와 다른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경상예산은 고작 2%에 불과하였고, 16개국에서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출 비율이 5% 이상인 국가는 쿠웨이트와 말라위뿐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등교육 지출이 증가

높은 중등학교 진학률은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한다. 정부 수입의 중등교육 부문 공공 지출과 관련한 61개국의 1999년과 2012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38개국에서 중등교육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15개국은 저소득 또는 중하위 소득 국가였다.

부패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소모

정부의 부패는 교육을 비롯한 공공 사업의 형평성에 악영향을 미쳐 왔다. 다카르 행동계획에서도 ‘부패는 교육을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며 철저하게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CSO)는 부패 관행을 척결하는 활동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의 부패는 여전히, 그 비용은 보통 공공 부문 밖에서 교육에 접근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빈곤층이 부담하고 있다.

교육 지출의 형평성 및 포괄성

교육에 더 많은 국내 자원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

니라, 자원 지출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빈층, 장애인, 고립 지역 또는 소수 인종 집단 등,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를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집단에 공공 지출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 1인당 동등한 규모를 기준으로 지출을 하는 국가가 많아 학교 간, 지역 간의 차이와 사회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빈곤층일수록 초등교육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평균을 보면 고소득 국가의 고등학생에 대한 지출 비용이 초등학생의 1.3배에 불과한 반면, 저소득 국가가 고등학생 1명당 지출하는 비용은 초등학생 1명당 지출 비용보다 11배나 크다. 공공 지출을 통한 빈곤층 지원이 가장 필요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들이 도달하는 수준에서, 부유층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계가 국가적인 교육에 대한 노력을 부담

많은 국가에서 불충분한 국가 교육 지출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담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국가일수록 교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다. 지역을 막론하고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국가 50개국에서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의 일정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계 교육비 지출은 총 지출의 31%를 기록 하였다. 교육분야의 공공 재정이 최하위 25개국에서는 가계가 총 지출의 42%를 부담한 반면, 최상위 25개국에서는 27%를 부담하였다.

국제 개발 원조

2000년 이래 공여자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EFA)’에서 설정된 6대 목표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기초 교육 원조가 매해 6%씩 증가될 때, 교육에 지출되는 총 원조의 비율에는 증가가 없었으며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보건 분야의 총 원조 비율은 9%에서 14%로 늘었다. 전체적인 교육 원조 규모는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10%(총 13억 달러) 감소하였다.

교육 수준별 원조 지출

‘모두를 위한 교육(EFA)’ 6대 목표 중 다섯 가지와 연관성을 지니는 기초 교육 원조는 2009년과 2010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15%(9억 2,100만

2012년 저소득
국가의 고등학생
1인당 지출은
초등학생의
11배이다.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원조는 6% 떨어졌다. 2012년에는 절대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도 고등교육 원조가 기초 교육에 비하여 높았다.

교육에 대한 외부 자금 조성은 다른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는 간과한 채 초등교육에만 집중되었다. 총 지출 중 기초 교육 부문인 청소년 및 성인층 대상 기초 생활 기술과 유아 교육에 대한 원조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공여 전략의 경우 성인교육, 원격 교육, 비형식교육 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지역별 원조 지출

전 세계 학교 밖 아동 중 반 이상이 속해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기초 교육에 관한 원조는 200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09년부터 계속 떨어져왔다. 2002-2004년에는 기초 교육에 쓰인 총 원조금 지출의 평균 47%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배정되었으나, 2010-2012년에는 31%로 줄어들었다. 서남아시아에 지출된 기초 교육 원조금의 비율은 꽤 일정하게 유지 되었는데, 21%에서 22%로 소폭 증가하였다.

빈곤층을 위한 원조 지출

1990년대초에 저소득 국가에 전 세계 빈곤층의 93%가 살았던 반면, 2012년에는 72%가 중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었다. 최근에는 학교 밖 아동의 59%가 중간 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 국가와 취약 국가와 같은 기초 서비스 원조가 절실한 곳이 여전히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에 지원되는 기초 교육 원조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40%에서 34%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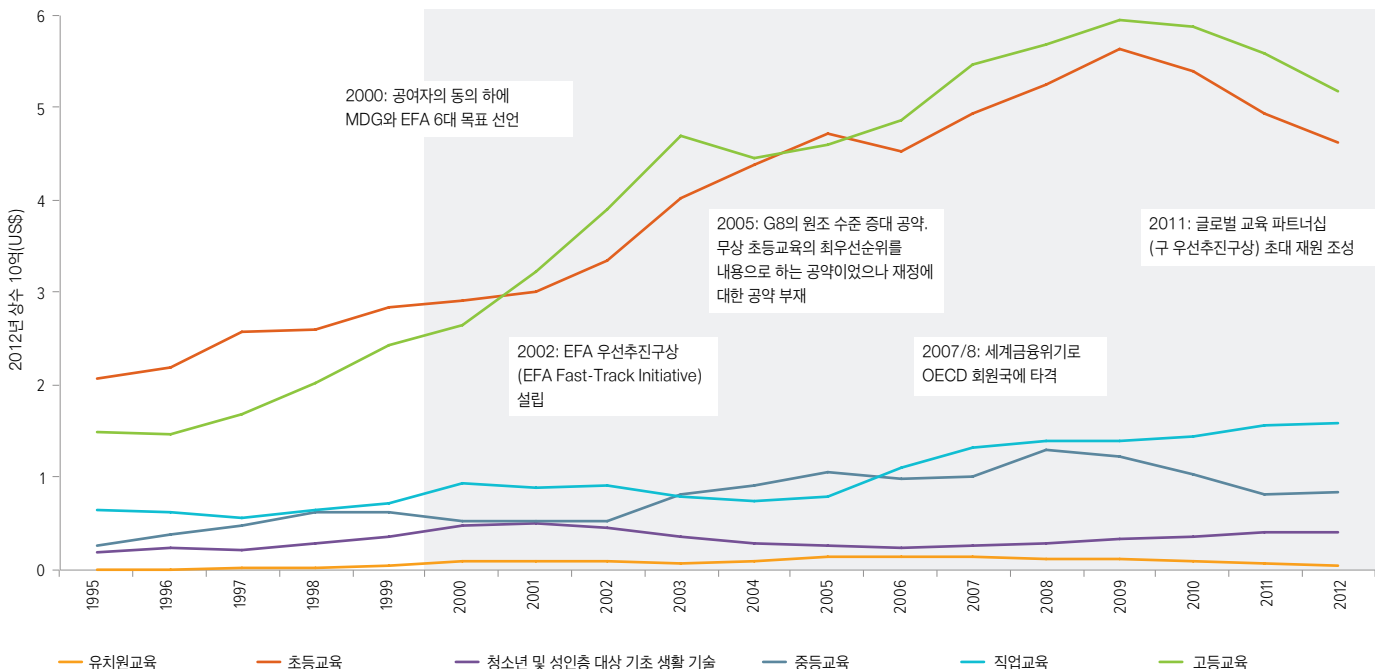
2010년에 기초 교육 원조는 부진하였다

2000년 이래로 일어난 원조의 경관 변화

원조는 한때 OECD 공여국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래로 개발 도상국들이 개발협력을 위하여 대안적인 세계 체제를 구성하였다. 2004년에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빈곤과 기아 완화를 위한 기관 IBSA(India-Brazil-South Africa Facility for Poverty and Hunger Alleviation),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만든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가 그 예이다.

표 10: 초등교육 이외의 EFA 목표에 대한 원조는 제자리걸음

연속 3개년 평균 교육 공약에 대한 총 원조 규모, 1995-2012



비고: 2002년 이전에 관해서는 지출 데이터가 없으므로 원조 공약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원조 공약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연속 3개년의 평균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출처: OECD-DAC 개발원조위원회(DAC) (2014)

더욱 효과적인 교육 구현 공약 달성에 실패한 공여국

다카르 회의 이후 원조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 원조 거버넌스의 개선에 대한 정치적인 공약이 강하게 표명되었으며, 2005년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는 더 나은 원조 구현을 위한 전례 없는 공약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2010년까지 13개의 원조 효과성 목표 중 달성된 목표는 기술 원조에 부합하는 공조뿐이었다.

효과적인 공여국 공조를 저해하는 국제 원조 체계의 부재

교육 공여국은 국제 공조를 통해 가장 요구가 큰 지역에 원조를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 및 국가적 수준의 공조 메커니즘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2011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다국적 기구와 국제 기금을 이용한 공조 증대를 강조하였으나 기초 교육에 대한 양자 원조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역 및 부문별이



Credit: Ami Vitale/Panos Pictures

라는 특징을 가진다.

국제 협력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집중 지원

2002년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우선추진구상의 후신으로 설립된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은 교육 원조의 국제적인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은 부족했다. 그러나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의 잠재력과 역량이 기여하는 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 선정이다. 2010-2012년을 살펴보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지출이 42%인 데 비하여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PE)의 경우 총 지출의 평균 81%가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집행되었다.

접근 달성 차원을 넘어선 원조 전략의 확장 필요

교육 원조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등록률 증가이며, 이는 특히 기초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별 간 격차 해소에 대한 외국의 원조는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빈곤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와의 거리, 여아의 등교에 대한 기회비용, 문화적 신념 등 여아의 입학률 막는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효과적인 공여국의 원조가 필요하다.

교육 부문에서 인도적 원조의 역할

고질화된 비상 사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명 구조와 직결된다는 논리로 인도적 원조 부문과의 결합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

미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적 지원 체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원조가 지속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2012년, 각국 정부, 유엔기구,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단체(CSO)로부터 총 인도적 지원 중 교육에 배정되는 비율을 두 배, 즉 인도주의적인 호소로 마련된 전체 기금의 최소 4%로 증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도 여전히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간과되어 온 EFA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NGO의 효과적인 자원 지출

NGO의 형식교육 기금은 26억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NGO가 기초 사업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출부문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여자가 간과했던 비형식교육 및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 등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와 상통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기금 조성의 중요성 대두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조성된 기금이 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혁신적 개발 자원(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지도부는 교육 기금 조성 확장을 위한 아홉 가지의 메커니즘(금융거래세, 국내 통화 교육 채권, 벤처 기금, 디아스포라 채권, 이주자의 자발적 기부, 채무 교환, 스포츠세, 민관 협력, 소액 기부)을 권고한 바 있다. 2002년 이래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마련된 보건 재정은 70억 달러에 달하지만 교육 부문 재정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2013년에 인도적 차원의 원조의 단 2%만 교육 부문에 배정되었다.

권고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조

모든 국가가 기초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1년 이상의 의무 유치원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자원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전원에게 혜택을 제공할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한다.

형식교육 프로그램의 실현성이 낮을 경우 공동체 기반의 조기 교육 및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아동의 인지 자극에 도움을 주고 사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훈련을 받은 교사와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에서 돌보미와 교사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급여가 지불되도록 하여 양질의 인력을 증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2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수단 강구

정부는 대상이 분명한 계획과 간편한 제한 조건만을 갖춘 현실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빈곤 가계에서 등록금 외 기타 수수료, 교복 및 교통비 등의 등교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등록을 늘리고 중퇴를 줄이기 위하여 건강과 영양과 같은 영역에서 다부문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도로, 수자원, 전기 기반시설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 상황 및 무력 분쟁 지역의 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긴급 사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3 청소년 및 성인층의 직업 및 생활 기술 습득 수준 개선

정부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 의무 중등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일과 학업의 병행은 아동의 기초 기술 습득의 기회를 줄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에서 언급한 취업 최저 연령을 비준, 반포 및 시행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형식교육 과정 각 단계에서 습득할 기술을 식별하고 그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실무 훈련, 견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기술 습득에 가장 효과적이고 공평한 교육이나 훈련을 판단해야 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성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인교육의 지속 및 심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 모든 성인의 문해권 및 수문해권 실현

문해 정책 및 전략은 사회, 보건, 공동체 개발, 농업 혁신, 적극적인 시민의식의 필요에 대한 기존 개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문해력 습득 및 유지를 위한 휴대 전화 및 기타 ICT의 지원이 필요하다. 각국이 성인이 습득해야 할 기술 수준을 명시하고 참여도 및 성과를 측정, 모니터링함으로써 문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5 양성균등에서 양성평등으로의 초점 전환

학습 환경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여 적절한 교육 자료, 식수, 위생 시설 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현직 및 예비 교사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교실에서의 교수법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성 전략(gender strategies)을 포함하는 내용을 다룰 것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설계 시에는 지역적인 맥락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교육 과정이 보건 생식 및 성교육 등을 포함하는 성 인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교육의 질에 대한 투자

정부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계약직 교사의 채용과 관련한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교사가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보충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하고 포괄적인 교육 과정 콘텐츠를 지원하여 학습을 개선하고, 교과서를 위시한 적절한 교육 자원이 누구에게나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 및 교실의 맥락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수 유형 및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다언어 사회에서 교육 분야의 언어 정책은 효과적인 학습에 중요한 요소이다.

강력한 제도 마련과 형평성에 대한 노력이 결합된 정부 체제가 요구된다.

빈민가에 대한 적절한 교사 배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양질의 수업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다.

각국이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학습 평가 시행 역량을 증대하고, 다양한 과목에서 양질의 교육, 효과적인 교수, 형평성 있는 학습 성과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7 가장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금 조성 및 자원 집중 강화

Post-2015 교육 체계에 사용될 자금 출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의 자원 동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저소득 또는 중하위 소득 국가의 경우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에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3.4%, 또는 전체 교

육 수준에 대해 5.4%를 지출해야 한다.

공공 교육 자원을 유치원 교육, 비형식 학교 교육, 성인 문해 교육에 재배정하여 소외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공여자의 경우 교육에 대한 지출을 대폭 증대하고 적절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계 개발 및 인도주의적 원조의 공조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소외 시켜서는 안된다.

약 220억 달러의 재정 격차를 고려했을 때 저소득, 중하위 소득 국가의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에 대한 공여자의 원조 규모를 적어도 4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전 교육 자원을 추적하는 진단 도구에 투자하여 정부와 공여자가 다양한 소득층에 돌아가는 공공 지출의 혜택을 더 쉽게 평가하고 극빈층 아동을 간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8 형평성에 역점 강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가 교육 개입 계획에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가게, 노동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세분화된 데이터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 계획을 개선하고 가장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9 심각한 데이터 격차 해소를 통한 모니터링 개선

문해 기술, 재정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에서 중요한 데이터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교육의 지식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통의 기준, 역량 구축 및 데이터 조직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과목에 대한 국내 학습 평가를 연계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토대로, 시간에 따른 각국의 학습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인구 집단의 교육 현황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문해율 데이터의 유용성,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을 증대시켜 정책 입안과 계획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 현황 보고서(GMR) 발행은 종료되지만, 교육에 특화된 독립 현황 보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은 존재한다.

10 교육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조 과제의 해결

교육 정책 구현 전략은 뛰어난 전문성과 정치적인 매력을 갖춰야 한다. 즉, 명확한 목표와 전문적인 전략과 역량이 필요하다. 재정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의 지원과 명시적인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정부 및 공여자의 목표 달성이나 공약 실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명확한 책임 기제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부터 보건과 사회 평화까지 아우르는 post-2015 개발 의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에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과 접근법 재설계를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Credit: Tuan Nguyen

모두를 위한 교육(EFA) 2000-2015: 성과와 과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 12권은 2015년에 종료하는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6대 목표와 관련하여, 전 세계 사업 진척도에 대한 신중하고 포괄적인 통계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개발 및 교육 의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과제에 반영합니다.

많은 곳에서 주목할 만한 진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교육 보편화를 지향하는 변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여러 나라의 성별 간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간주하는 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여전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돌아갑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2000-2015: 성과와 과제』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에 관한 국가별 진척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업에 주목합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2015년 이후 교육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합니다. 또한 교육이 post-2015 세계 개발 구조의 초석이 될 것임을 주장하는 권위 있는 출처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 근거 기반 간행물로 정부, 연구 기관, 교육 및 개발 전문가, 매체, 학생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개 국가 및 지역의 교육 관련 진척도에 대한 연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는 post-2015 지속가능발전 의제 하에 계속 이행됩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혁 중 하나는 모든 어린이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덕에 모든 이들이 교육이 맺은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노동력을 빼앗겼지만 그 대신 더 나은 미래가 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얻었습니다.

- 소남(부탄, 교사)

편지를 쓸 줄 모르거나, 휴대폰이나 ATM 기기를 사용할 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아이들은 결코 무지함 때문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 오모비고 라니 에비레리(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 대학)

반군이 일으키는 일들 때문에 떠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를 부셔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녀들의 특정 복장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몸쓸 복장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학교 책상을 부수고, 우리 책과 물건도 찢고 부숴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공부할 곳이어야 합니다.

- 시타(나이지리아, 학생)

만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가 유치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년기의 조기 교육은 최우선적인 문제입니다.

- 마르타 이사벨 카스타노(콜롬비아, 초등 교사)



UNESCO
Publishing



www.unesco.org/publishing

www.efareport.unesco.org

